

四二七九年四月二十二日第三種郵便物認可

# 소학생

5월 치



아협 발행

★ 78호 ★

五洲書局

# 사진 세계 일주 ②

## 남양의 여러 나라



### ①코끼리 사냥

열대지방에서는 범, 코끼리, 물소 등 맹수물 사냥합니다. 그 중에도 코끼리는 이빨(상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자주 잡아 죽입니다.



### ②세계 제일 큰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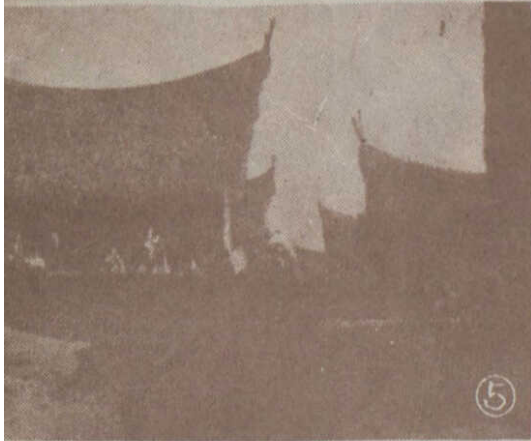
“라후메샤”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꽃입니다. 직경이 석 자나 되고, 노랑 바탕에 빨간 점이 있는 이상한 꽃입니다.(스마르타)

### ③어린이와 물소

사나운 범까지도 거꾸머리로는 물소지만, 농가에서 결을 풀이면 이렇게 순해집니다.

### ④작크리의 궁전

1872년에 지은 궁전입니다. 거룩은 물론 속 장치도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입니다.(타이)



### ⑤자와의 농촌

한가로운 농촌 풍경입니다. 아무 보잘 것 없는 마을이지만 모여 있는 사람들이 평화스러워 보이지요.(자와)

### ⑥소년 음악대

자와 독특한 음악대입니다. 아주 원시적인, 대로 만든 악기로 거리에서 연주를 합니다.(자와)



### ⑦시원한 가로수

남양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야자나무 가로수. 그리고 그 넓은 잎 사이에는 야자 열매가 매달려 있습니다.

# 소학생

4203년 5월 1일 발행

5월 78호

## 차례

- 동요 • 강 물.....한 인현(25)
- 동요 • 봄 • 안개 낀 한구...김 상우(20)
- 옛 시 조 .....윤 절도(36)
- 어린이 날 노래 .....윤 석중(15)
- ★오늘의 어린이.....최 병화(13)
- ★미국 명절과 어린이...이 른영(16)
- 연: 채석강의 소년...염 상섭(22)
- 솔: 이름없는 별들...정 인택(40)
- 동화 • 아 기 별...오스카 • 와일드(4)
- 동화 • 울지않는까지 ...김 요섭(34)
- 행주 나드리(기행문) ...이 희승(18)
- 책의 역사.....이 상문(48)
- 재 공 부.....윤 태영(37)
- 읽은 어떻게 자라나나...전 환(21)
- 우체 제도는 누가 먼저...조 용만(50)

### 아침 현상 작품 당선자 발표(12)

- 세계 걸작 삽화집 .....(53)
- 개미도 말한대요 .....(32)
- 짧은 소식 .....(33)
- 소년 장식 문답.....(28)
- 최신식 쿠키.....(52)
- 척척 박사 ... (52) 짹짹 박사...(24)
- 만 도술범사.....김 의환(42)
- 화 아담손 할아버지.....(15)
- 소학생 클럽 • 만글그 나서.....(54)

### ☆그림 그리신 분☆

- 정현웅 • 김규태 • 조병덕
- 임동은 • 김의환 • 최수섭
- (결장 • 정 현웅)



## ☆ 이달의 메모 ☆

- 5월 1일 ...테에테에. (세계 노동자 기념일)
- 5월 5일 ...어린이날.
- 5월 6일 ...입하 (立夏)
- 5월 10일 ...5.10선거 기념일.
- 5월 14일 ...어머니날.
- 5월 30일 ...국회의원 총선거일.

영국동화

# 별 이야기

오스카. 와일드

그림. 김익환



## (1)

옛날 옛적 어느 날, 가난한 나뭇꾼 둘이서 나뭇짐을 지고 바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읍니다.

날은 춥고 바람은 차고 눈 덮인 땅은 딱딱하게 얼어 붙어, 길가에 섰는 나무 가지도 추운 듯이 발발 떨고 있었읍니다.

그들은 가난한 살림살이를 서로 한탄하면서 걸음을 빨리 하였읍니다.

바로 그때였읍니다. 별안간 컴컴한 하늘에서 빛나는 별 하나가 휘 땅으로 떨어졌읍니다.

별은 숲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느 집 외양간 옆에가 떨어진 것이었읍니다. 깜짝 놀란 그들은 잠깐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 먼저 찾아 번 사람이 갖기로 하세.”

하고 다투어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네들은 가난하고 궁핍하였었읍니다.

## (2)

마침내 그 중 한 사람이 먼저

외양간 옆 덩불 곁으로 달려 들었읍니다. 그리고 그곳을 살펴 보았읍니다. 앗! 그렇게 거기에 떨어진 것이 무엇이였겠습니까?

눈 위에는 과연 별 같은 것이 떨어져 있었읍니다만 가까이 가서 잘 들여다 보니 그것은 발을 수 없이 밟아 수놓은 금빛 비단 의류였었읍니다. 그것이 들들 뭉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뒤쫓아 다른 나뭇꾼도 달려 왔으므로 그들은 눈 위에 주저앉아서 그 의류를 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이걸 또 이상합니다. 그 속에는 두 사람이 바라던 금은보배는 없고 다만 길이 잠든 조그만 어린 아이가 있을 뿐이었읍니다.

“이런 제기, 이게 무슨 재수야! 아이를 주어가면 무슨 소용이었던 말인가. 제 자식만해도 먹이기가 딱할 지경인데. 이까짓 것 그대로 버려두고 가세.” 한 사람이 이렇게 증언거리니까,

“안제, 어린애를 눈 위에다 내

버려두면 일어 죽지 않나. 그런 무지스런 짓을 할 수가 있나. 나도 어려워서 내 자식들도 굶어 죽일 지경이지만 메리고 갈 수 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아기를 안아 울리고 굶지 않도록 금빛 의류로 잘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읍니다.

## (3)

“난 오늘 숲 속에서 이런 걸 얻어 왔소.”

나뭇꾼은 집에 돌아오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그게 뭘예요? 빨리 보여주세요.”

하고 아내는 반가워하며 일흔 의류 속을 들여다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이 어린 애인 것을 알고 기가 막혀 투덜거렸읍니다.

“아아니 당신은 집의 아이들만 해도 해 내질 못하면서 남의 자식까지 주어오면 어떡할 셈이요. 글썸.”



“아냐, 애는 보통 어린애가 아  
니야. 별 아기야.”

나뭇군은 이렇게 대답하며 아내  
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따위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  
았습니다.

바로 그 때였습니다. 살을 어  
이는 듯한 찬 바람이 숲에서 불  
러 와 열어 놓은 문으로 휩 들어  
왔습니다. 모두를 부두루 떨어뜨  
렸습니다.

“문을 닫으세요. 쥐 죽겠어요.”

“인정 없는 집에는 모진 바람  
이 불어 오는 법이야.”

하고 나뭇군이 대답했습니다. 그  
러니까 아내는 무슨 생각을 했는  
지, 눈에 눈물이 글썽 글썽해 가  
짜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  
뭇군은 잠자코 아기를 아내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아  
기 이마에 입을 맞추고 저의 제  
힐 끝의 애가 자는 자리 속에 누  
웠습니다.

(4)

별아기는 나뭇군의 아이들과 같

이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다른 아이들과 꼭 같이 먹고 자  
고 했는데도 별 아기만 웬 일인  
지 하루 하루 귀엽게 커갔습니  
다.

세까만 그의 머리는 비단결 같  
았습니다. 입술은 빨간 꽃잎 같  
고, 눈은 수정 같이 맑고 검은  
포도알 같이 반짝거렸습니다. 몸  
매는 마치 들판에 피어있는 수선  
화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드디어 별아기에게는 화가 되었  
습니다.

별아기는 점점 거만스러워져서  
저보다 예쁘지 않은 마을 아이들  
을 업수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부하라고  
부르고 저는 대장인냥 하였습니  
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장님이  
나 병신이나, 또는 어딘가 좀 못  
생긴 사람을 보면 조금도 가엾  
어하고 동정하지 않을 뿐더러 돌  
을 던지고 침을 뱉고 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은 일신도  
못했습니다.

나뭇군 내외는 얼마나 이 아이  
를 꾸짖었는지 모릅니다.

“네가 가엾은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네게 하면  
너는 어떻게 하니? 그것을 생각  
하면 어찌 그런 나쁜 짓을 한  
단 말이나?”

그렇지만 별아기는 아무런 이런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  
다.

날마다 날마다 마을 아이들의  
두목이 되어가지고 세나 빌레를  
잡아 죽이거나 거지에게 물을 던  
지거나 하는 것으로 날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5)

어느 날이었습니다.

불쌍한 여자 거지가 하나 이 마  
을을 지나 갔습니다. 옷은 갈래  
갈래 헤어지고 발은 험한 걸을  
걸어서 피투성이가 되고 참아 눈  
으로 보지 못할 가엾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아기는 그 거지를 보자 등무들  
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 우리 저 거지를 쫓아 버  
티자. 저렇게 더러운 건 이 마  
술에 뒤 들 수 없으니까.”

그러고는 제가 앞장 서서 거지에  
게 들을 던지고 소리를 질러 목  
을 피부였을터다. 그러나, 그 거  
지는 이상하게도 꿈쩍 않고 서서  
별아기의 얼굴만 딱히 쳐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때 마침, 그 근처에서 나무  
를 베고 있던 별아기를 주어다  
걸은 나뭇꾼이 달려 와서, 별 아  
기를 나무했습니다.

“너는 또 뭘 된 것을 하고 있구  
나.”

그렇지만 별아기는 코웃음을 치  
며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종, 내가 뭘 잘못했다 말예요.  
당신은 정말 우리 아버지도 아  
니면서 목하면 남을 나무라기  
란 하고.”

“정말 애비는 아니지만, 내가  
너를 숲 속에서 주어 왔을 때  
는 너는 아주 갓난 아이였었

어. 그만큼이나 쉼터 주니까 그  
게 무슨 말 비롯이나.”

이 말을 들은, 그 여자 거지는  
잡자게 외마뼀소리를 지르더니  
그만, 거센데 쓰러지고 말았습니  
다.

(6)

나뭇꾼의 잔으로 얼마 후에 숲  
을 들린 그 거지는 이렇게 말었  
습니다.

“당신은 저 아이를 숲 속에서  
주어 오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게 저금부러 십 년 전 일이  
지요?”

“그렇습니다. 십 년 전입니다.”

“그 때 저 아이가 입고 있던 옷  
이 벌을 여러 개 수놓은 금빛  
외루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고 나뭇꾼은 상자 속에서 그 외  
루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여자 거지는 이것을 보자,  
너무 기뻐서 울면서 말하였습니  
다.

“아아 저 아이가 바로 제가 숲

속에서 잃어 버린 제 자식입니  
다. 저는 저 아이를 찾으러 온  
세상을 다 헤매어 돌아 다녔습  
니다.”

나뭇꾼 내의는 일론 그 별아기  
를 겹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예야 너의 친어머니가 오셨  
다. 인자여워.”

“그래, 내가 네 애미다.”

거지는 정말 반가운듯이 말했습  
니다. 그러나 별아기는 이 거지를  
살살한 눈초리로 노려 보면서 이  
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이 미쳤소? 그런 누더기  
옷 입은 거지가 우리 어머니일  
티는 없소.”

(7)

그래서, 어머니는 증거가 필만  
한 금빛 외루 이야기와, 십 년 전  
에 숲 속에서 잃어 버렸다는 이  
야기를 하여서, 별아기는 좀체로  
알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참말로 당신이 나를 난 어머  
니라 하더라도 거지가 되어 가



지고 나무를 찾아 올때면, 차라리 찾아 오지 않는 게 좋아요. 난 부끄러워요.”

그리고는 빨리 여기서 나가 달라고 하였읍니다.

“...그럼 나가겠다. 그렇지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내게 와서 안겨다오. 너를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겠니? 한 번이라도 좋으니...”

“싫어. 싫어...당신께 안길때면 땀이나 개구리개 안기는 게 훨씬 나을걸요.”

별아기의 대답이었읍니다.

(8)

그러나 이 아이에게 무서운 벌이 내리지 않을 리가 있겠읍니까.

그는 풀이 통통나서 집을 튀어나와 어느 개울 가르 갔읍니다.

그때 무심하고 제 얼굴을 물에 비끼 보고는 깜짝 놀라,

“아!”

하고, 소리를 질렀읍니다. 지금까지의 아름다웠던 얼굴은 어느 틈에 더럽고 보기 흉한 두꺼비 같

이 변해 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온몸에는 뱀과 같은 비늘이 온통 덮여 있었읍니다.

“아아.....”

별아기는 처음으로 제 잘못을 뒤우치고 잔디 위에 쓰러졌읍니다.

“이건 모두가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일 제다. 어머니를 어머니 아니라고 내뿜은 무서운 벌일 제다. 나는 이제부터 온세상을 헤매어 그에 어머니를 찾아내고 말겠다.”

그래서 별아기는 숲 속으로 뛰어들어 가서 크게 외쳤읍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읍니다.

별아기는 두더지를 붙잡아 가지고 물어 보았읍니다.

“넌 땅 속으로 다니니까 알겠구나. 우리 어머니는 혹시 땅 속으로 가지지나 않았니?”

그랬더니 두더지는

“너는 나를 정념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니. 눈 없는 내가 무얼

본단 말이나?”

하고, 대답하였읍니다. 다음에는 참새 보고 물어 보았읍니다.

“넌 날아다니니까 온세상을 둘러 볼 수 있겠구나. 우리 어머니를 못 보았니?”

“너는 내 날개를 잘라 버리지 않았니. 나는 날지를 못해.” 하고 참새는 대답하였읍니다.

별아기는 또 느티나무 가지 위에 사는 다람쥐더러 물었읍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디로 갔다니?”

다람쥐는 대답하였읍니다.

“너는 우리 엄마를 죽였지? 어떤엔 너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찾고 있구나.”

(9)

별아기는 이렇게 사흘동안이나 숲 속에서 헤매었읍니다만 어머니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읍니다.

사흘만에 그는 숲을 나와 동배로 갔읍니다.





보기 흉한 그 아이가 지나니까 동네 아이들은 모두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농가에서는 쌀에 곰팡이가 슬까봐 무섭다고 그를 외양간에서도 자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더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삼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별아기는 강가에 성문이 우뚝 서있는 큰 도회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 가려고 하니, 문직이가 창으로 길을 가로 막았습니다.

“너는 무엇하러 들어 가려는 거냐?”

“어머니를 찾으려고 그러니다.”

그 말을 듣자, 문직이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쌀이 더러운 것이 찾아 가면 도리어 어머니가 싫어하실 게다.”

“그래두 나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삼 년 동안이나 헤매어 돌아 다녔는 데요. 들어 가게

해 주세요 네.”

“안돼, 안돼.”

문직이는 창 끝으로 아이를 슬쩍 밀었습니다.

### (10)

그랬더니 거기에 두구들 쓰고 갑옷을 입은 병정 하나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문으로 들어 가겠다는 놈이 누구야?”

“거집니다. 어린 거지예요.”

“거지? 그럼 그 녀석을 종으로 팔아 먹는 게 좋겠다. 술 한 병 값은 될 테지.”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때에 지나가던 노파 하나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사지.”

하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돈을 얼마 주고는 별아기의 손을 잡고 거리로 들어 갔습니다.

그러고 얼마동안을 걸어가서, 어느 조그만 집에 당도하였습니다. 그 집은 한 커다란 석류나무

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노파가 사과야 (과탄 보석의 이름) 를 문에 대니까 문은 금방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뜻외로 많은 다섯층 층대가 있었습니다.

노파는 비단 수건을 꺼내어 별아기의 눈을 가리고 자기가 앞장 서서 걸어갔습니다.

수건을 끌었을 때, 별아기는 여기는 무슨 지하실에 틀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노파는 나무 접시에 곰팡이 쓴 빵을 담아 가지고 와서 별아기 보고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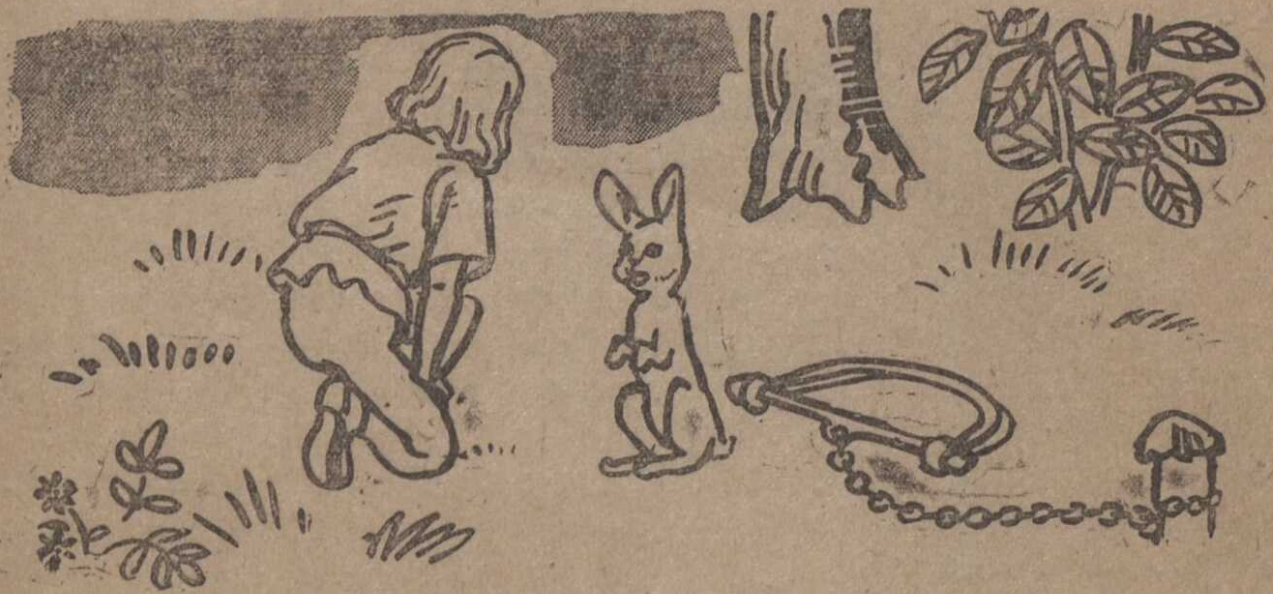
그리고 공기에 짜디찬 물을 떠 가지고 와서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별아기가 이것을 먹고 나니까 노파는 문을 잠그고 나가 버렸습니다.

### (11)

이 노파는 무서운 요술할머니였습니다.

그 이튿날, 요술할머니는 별아기를 찾아와서, 무서운 얼굴로 말





하였습니다.

“이 거리로 들어 오는 문 가까이에 커다란 수풀이 있는데, 그 속에는 금돈 세 개가 감춰 있다. 그것은 하얀 것, 노란 것, 빨간 것, 그렇게 셋인데 오늘 너는 하얀 돈을 찾아 와야 해. 알아 들었니? 찾지 못하면 나한테, 몽둥이로 때 던 맞을 줄 알아. 난 너를 종으로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던 말이야, 자야 어서 가 봐.”

별아기는 또 비단 수건으로 눈을 가리우고 밤으로 내쫓겼습니다.

별아기는 하는 수 없이 요술할머니가 일러 준 수풀로 갔습니다. 숲은 여러 가지 꽃이 만발하고 귀여운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아주 꽃동산 같이 아름다우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별아기는 기뻐하며 막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길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우게 보이던 숲이 속에 들어 가 보니 온통 썩어나가

시덤불로 덮여있었습니다. 별아기는 하루종일 덩불을 헤치고 다니며 찾았으나 요술할머니 말한 하얀 돈은 커녕 쇠 조각 하나 눈에 띄지 않고 몸뚱이만 여기 저기 찢겨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훌쩍훌쩍 울면서 어둑어둑 해질 무렵에야 숲에서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몽둥이로 때 던지거나 얻어 맞을 생각을 하니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물 속에서 무엇이 피로운 듯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2)

별아기는 제 절음도 잊어 버리고 소리 나는 곳으로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토끼 한마리가 뒷에 걸터서 꼴꼴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셨어라! 나는 종이지만 어를 풀어 놔두 괜찮겠지?”

그러면서 별아기는 토끼를 뒷에서 끌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 드려야 좋은지요?”

하고 토끼는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난 흰 돈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찾을 수가 없구나. 난 집에 가면 주인에게 배편 얻어 맞아야 할란다.”

“그러면 저를 따라 오세요... 제가 찾아 드릴테니.”

토끼는 이렇게 말하면서 별아기를 커다란 떡갈나무 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 그런데 이젠 또 어찌 된 셈인지요? 그 떡갈나무 뿌리에 그 흰 돈이 달려있었습니다.

“아이 고마워라, 토끼야. 너는 나를 살려 주었구나.”

별아기는 정충정충 뛰면서 기뻐하였습니다.

“필요, 당신이 먼저 저를 구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말을 주고 받고 하는 동안에 토끼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

입니다.

(13)

별아가 동네 가까이까지 왔을 때 거기에는, 병든 거지 하나만 맥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별아가 앞을 지나러니까 이 거지가 땅에 땅도록 절을 하며, 애걸했습니다.

“돈 한 푼만 줘요. 배 고프 죽을 지경입니다.”

“나는 돈을 하나 밖에 갖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주인에게 갖다 드려야 해요. 만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나는 백편 두들겨 맞게 된답니다.”

그러나 하도 병든 거지가 가워서 별아기는 마침내 그 돈을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별아가 집에 돌아오니까,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요술할멈은,

“하얀 돈은 찾아왔어?”

하고 물었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별아가 대답을 하자마자, 요

술할멈은 손에 들었던 몽둥이로 몸을 으스러지게 별아기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끌고 가서 자물쇠를 철저히 잠겨 버렸습니다. 이튿날, 이 요술할멈은 또 다시 별아기에게 와서,

“오늘은 금빛 돈을 찾아 와. 만일 또 못찾아오면 오늘은 삼백편 맞을 때니 정신 차려 찾아봐.”

하고 별아기를 쫓아냈습니다.

(14)

별아기는 하는 수 없이, 또 어저께 갔던 숲을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때 킁킁해 질 무렵까지 가시덤불 속을 어리저리 헤매었으나 금빛 돈은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별아기는 또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에 그 토끼가 짹짹 뛰어나와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세요?”

“금빛 돈을 찾지 못하면 나는

주인에게 삼백편 맞아야 한답니다.”

“나만 따라 오세요.”

토끼는 앞장서서 숲 속을 짹짹 뛰어가더니, 어느 큰 연못가로 왔습니다.

연못을 둘러다 보니 금빛 돈이 바닥에 가라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무어라고 내게 지사를 해야 옳을지 모르겠구나... 두 편씩이나 나를 살려 주었으니.”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저를 구해 주셨지요.”

토끼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별아기는 금빛 돈을 건져 가지고 거리를 향하여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 거지가 별아기를 보더니 또 절을 하면서 달려 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돈 한 푼만 줘요. 약을 좀 삼켜야 하겠읍니다.”

“어떡허나 나는 금빛 돈 한푼 밖에 가진 것이 없는데, 이것을 또 안가지고 가면 주인에게 삼백 편 맞을때니...”



그러나 결국 별아기는 그 돈을 또 그 거지에게 주고야 말았읍니다.

(15)

별아기가 집에 돌아 오니, 그 요술할머니 기다리고 있다가 곧 묻습니다.

“오늘은 찾아 왔겠지?”

“못찾아 왔읍니다.”

별아기는 또 죽도록 열어 맞고 지하실로 끌려 갔읍니다.

어느날, 요술할머니 또 왔읍니다.

“만일 네가 오늘 빨간 돈을 찾아 온다면 니를 자유롭게 보내 내 주마. 그 대신 찾지 못하면 죽여 버릴테야.”

별아기는 또 숲으로 가는 수밖 에 없었읍니다. 그러고 또 하루 종일 빨간 돈을 찾느라고 죽도록 애를 썼읍니다. 그러나 빨간 돈을 찾아내지 못했읍니다. 또 훌쩍훌쩍 울고 앉았으니까, 전날 그 토끼가 또 나타났읍니다.

“당신이 찾으시는 빨간 돈은 당신 뒤에 있는 굴 속에 있어요. 우릴진 없읍니다.”

“아아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는단 말이나. ...벌써 세 번씩이나 나를 살려 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별아기는 기뻐했습니다.

“별오, 당신이 먼저 저를 살려 주시지 않았어요.”

토끼는 그렇게 말하고 또 없어져 버렸읍니다.

별아기가 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킁킁한 곳에서 빨간 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읍니다.

별아기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병진 거지가 또 돈을 달라고 애걸하였읍니다.

별아기는 가엾게 생각하고 “당신이 나보다 더 괴로운 모양이니, 이것을 드리지요.” 하고는 빨간 돈을 주어 버렸읍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당할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읍니다.

(16)

그런데 별아기가 거리로 통하는 큰 정문을 지나려고 할 때였읍니다.

“어쩌면 저렇게도 훌륭히 생겼을까!”

하면서 문적이가 공손히 절을 하는 것이었읍니다.

거리 에 있던 사람들도 그의 뒤를 따라 오면서

“은 세상에 여 분 같이 잘난 사람은 또 없을 거야!”

하고 감탄하였읍니다.

“아아 모두들 나를 놀리고 있구나. 내 흉한 모양을 비웃는 거야.”

별아기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 하면서 길을 걷다가, 길을 잘 못 들어 궁전이 우뚝 솟은 광장으로 나왔읍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궁전문이 열리며 그 속에서 훌륭한 법사와 임금님의 전하들이 나타나 별아기를 공손히 맞이하였읍니다.

“당신께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임금님이십니다. 왕자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왕자가 아닙니다. 저는 왕자가 아닙니다. 가엾은 거지입니다. 어떻게 가

련한 모양을 하고 있는 저를 훌륭하다고 하시니 어찌된 까닭이십니까?”

그러자, 무장을 한 병사가 손에 들었던 방패를 일흔 내밀면서, “왕자께서 훌륭하지 않다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읍니다.

그 방패에 비친 별아기의 모양은 어느 틈에 참말로 그 전의 그 아름다운 얼굴로 변해 있었읍니다.

“왕자께서는 인자하신 마음으로 전의 죄를 씻으셨읍니다. 아버님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대궐로 들어가십시오.”

별아기는 궁전으로 들어갔읍니다. 그리고 옛날에 거지모양으로 찾아오셨던 어머니 왕비를 오래간만에 뵈우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아버지 임금님께도 처음으로 뵈웠읍니다. 임금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어 그의 머리 위에 왕관을 올려 놓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읍니다.

이렇게 별아기는 이 나라의 임금님이 되어,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써 그 나라 사람들을 언제나 지나 행복스럽게 다스렸읍니다.

(31페이지에서)

떨어져서 걷고 있다.

“열길이 두 마음이 나쁜 애는 아냐. 완식이를 넘보구 그런게 아니라, 우리가 저만 따들려 놓구 노는가 싶어 꽤나 심술을 부렸던 제지...”

규상이는 혼자 걸으며 어떤 생각을 하다가, 완식이 집애를 요새는 너무 안 가보았구나 하는 후회도 났다. -계속-

# 작년보다 뛰어난 성적

## 작문과 동요

입선자  
발표



아침이 다섯번째로 모집한 동요와 작문은, 올해는 뜻 밖에 다른 해의 약 절반에 들어왔다. 그리하여 예정 대로 지난 5월 1일 심사원 이 병기, 이 희승, 피 쥬득, 박 영중, 윤 석중, 조 종연 여섯 선생이 심사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이런 응모 작품에서 특기할 것은 동요와 작문이 다 훨씬 성적이 올랐다는 것이니, 여기 불히

지 않은 작품 가운데도 버리기 어려운 작품이 매우 많은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소학생에서는 이 가까운 선의佳作(選外佳作)들을 아주 버리지 않고, 다달여 몇 편씩 골라서, 동요는 윤 석중선생, 작문은 조 종연선생이 담당하여 감상과 비평을 곁들이어 발표할 작정이다.

그리고, 어떤에 학교상을 차지한 연백의 흥현 국민 학교는 이

편만의 것으로는 그다지 뛰어난 정적이 아닐는지 모르나 작년에도 우수한 작품을 많이 보낸 것을 참작하여 결정된 것임을 말하여 둔다.

### 당선작품은 6월처에

자세한 비평도 함께 낸다

이 작품들은 대부분을 다음 6월처 소학생에 발표하겠는데 총비평을 이 병기(작문), 이 희승(동요)이 맡아 해주실 것이다.



### 특 등 (상장과 상품과 상금 5,000원) 어린 거지

수원 신봉국민학교 4년 김은경

### 우 등 (상장과 상품과 상금 2,000원씩)

- ①정월 보름날 경기 연백군 흥현국민학교 5년 홍 금선
- ②새기의 일기 전남 목포 북교 국민학교 5년 정 태정
- ③병 앓던 이야기 경기 연백군 흥현국민학교 6년 정 자운
- ④시루 안의 콩나물 서울 장충국민학교 5년 한 정희
- ⑤밀 국수 경기 연백군 배천국민학교 5년 김 장환

### 입 선 (상장과 상품과 상금 1,000원씩)

- ①책지의 죽음 충북 청원군 비산국민학교 5년 박 우재
- ②진달래 꽃 경기 연백군 흥현국민학교 6년 김 명주
- ③우리집 수도 서울 해화국민학교 1년 하 행연
- ④잊혀지지 않는날 (학교 이름이 바뀌었음) 5년 한 월향
- ⑤직목날의 느낌 경기 김포군 고촌국민학교 5년 노 기양
- ⑥물당반 청주 교동국민학교 5년 박 춘자
- ⑦나 비 인천 창영국민학교 2년 황 춘자
- ⑧화분에 심은 감자 부산 부민국민학교 1년 김 정옥
- ⑨나무를 심은 날 부산 부민국민학교 5년 김 수준
- ⑩나는 연필이다 서울 해화국민학교 1년 정 수자
- ⑪장학금을 받고 서울 해화국민학교 5년 유 기남
- ⑫간호생이 되고서 청주 교동국민학교 5년 김 희섭



### 특 등 (상장과 상품과 상금 5,000원) 어머내

경남 삼천포 문선국민학교 4년 이 대희

### 우 등 (상장과 상품과 상금 2,000원씩)

- ①하 품 서울 영희국민학교 6년 밀 경남
- ②병아리 전남 강진 중앙국민학교 5년 김 수정
- ③잠자는 노루 서울 서범부속국민학교 4년 이 희경
- ④저녁때 경기 강령군 청령국민학교 2년 이 종원
- ⑤산골집의 밤 경기 연백군 금성국민학교 4년 변 정희

### 입 선 (상장과 상품과 상금 1,000원)

- ①나 비 서울 서범부속국민학교 4년 이 대자
- ②시냇물 청주 추성국민학교 4년 김 명일
- ③모래밭 서울 서범부속국민학교 4년 이 순규
- ④땀뿜 위에서 서울 해화국민학교 5년 김 상문
- ⑤찰 채 부산 부민국민학교 2년 이 정자
- ⑥붕 어 개령 선종국민학교 5년 최 동조
- ⑦아기별 부산 부민 국민학교 2년 박 문홍
- ⑧뒷동산과 앞넷물 충북 자서국민학교 3년 김 기웅
- ⑨동 생 경남 진주 봉래국민학교 1년 박 정자
- ⑩옛장수 경남 진주 서범부속국민학교 2년 장 국원

### 학교상 (생태 한 개)

경기 연백군 흥현국민학교

## ☆어린이 날☆

해마다 5월 5일은 어린이들의 명절, 어린이날이다. 이 날의 내력, 이 날을 기념하는 뜻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분이 다 아는 바와 같다.

보통에 무슨 기념일이라고 특별히 날자를 받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풍속의 하나 거니와, 특히 어린이날은 여러분 어린이들을 위한 기념일이라는에서 한층 경사로운 날이라 하겠다. 왜그러나 하면,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고, 모든 제도와 행사가 어문을 중심으로, 어른을 위주하여 되어 있게 마련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극히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사회제도가 발달됨에 따라서 어린이들은, 교육받고, 보호받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어린이들이 자주적으로 생활해 나아가고, 어린이들 자신이 인격을 쌓아 나아가야 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날을 참으로 뜻있게 기념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른이 만들어 준 기념일로 알것이 아니라, 어린이들 스스로가 차지한 기념일로 삼지 않아서는 안된다. 이 날은 다만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놀고, 재롱을 부리고, 영석을 피우는 날 판이어서는 안된다. 물론 즐겁게 노는 것도 좋고, 영석도 좋지만, 이 날따라 씩씩한 기상과 슬기로운 앞날의 희망을 가다듬어,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계획이 선다면 이보다 더 경사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작은불)

## 내가 어렸을 때와

## 오늘의 어린이

최 병 화

내가 어렸을 때 소학생들은, 한 말로 말하면 불행하였고 비참하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나라의 어린이로, 왜놈 밑에 압제를 받고 지내는 절음, 자유를 잃고 지내는 고통이, 지각이 들어 갈수록 점점 심하여 갔습니다.

“왜? 어쩌서 우리는 독립한 나라의 떳떳한 백성이 못되고, 이지경 요팔이 되어 간담.”

날이 갈수록 나라를 잃은 어린 소학생들의 가슴에는, 억울하고 원통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들의 어리석고 무기력한 때 기가막혔고, 또 죽으나 사나 왜놈들과 한바탕 싸우지 못하니 하고 원망까지 하였습니다.

좀 나이 어린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라 형편이 돌아가는지 알 까닭이 없었습니다.

설날이 되면 새옷 입고 세배 다니고, 세배돈으로 총을 사서 땅땅 놓고 좋아하며, 또 고무 풍선을 사서 들고 다닌다, 때 때 피리를 불며 다닙니다. 이 골목저 골목에서는 널 뒸는 소리가 요란히 들려 나왔습니다.

4월 8일, 석가여래 탄신 전날에는 종로, 광교다리 큰 가게에는 여러 가지 색종이로 만든

꽃등을 팔았습니다. 나도 장옷 쓰신 할머니 손을 잡고 등을 사러 갔었습니다.

5월 단오에는 창포물에 머리 감고 제수를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부스럼을 앓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날 대목이 되면 떡집에서는, 흰떡 치는 소리 철석철석, 맵기, 대님, 허리며, 주머니, 열탕 같은 것을 앞으로 축느려뜨리고 팔라다니는, 끈목 장수들의 청승맞은 소리가 설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설날 그믐날 밤에는 어린이들은 냇돌 위에 있는 자기 신발들을 남몰래 감추어 둡니다. 만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임행이가 신고 가면 신발 임자가 죽는다고 합니다. 또 자면 눈썹이 선다고 해서 아니 지려고 애를 쓰다가, 북소리 자라는 소리를 어렵듯이 들으면서 그만 자버립니다.

어느 집에서는 누나가 동생 눈썹에다가 분칠을 해놓고는 그이를날 눈썹이 셋다고 해서, 정월 초하룻날 울기 까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미신입니다 마는 그 때는 정말 같이만 믿어졌었습니다.

대개 이것이 내 어렸을 때 어린이들에게 기쁨이라면 기쁨이

라고 하셨습니다.

보통학교 4학년 졸업반만 되면, 비르소 나라 없는 백성의 설움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나는 동무들과 함께 저녁이면 큰길거리 전당포집으로 갑니다.

그 집 대문 옆에 붙인 매일신보를 열심히 들여다 봅니다.

그 때는 제1차 세계 대전이 벌어져서 연합국과 도이치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곳 싸움에서 도이치가 이겼다는 기사를 읽을 때는, 여간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까닭은 일본과 영국이 동맹국이라, 일본이 중국 청도에 있는 도이치군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일본을 미워하는 감정에서 연합국이 지길 바랐고, 또 도이치가 이기면 그저 어린 생각에 우리 나라가 독립할 길이 열리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운동회, 졸업식 날에는 식장에 만국기를 달아 찬란하게 장식하는데, 우리 나라 태극기가 없는 것을 꼭 섭섭히 여겼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나라기를 보여줍시라고 하였던니 독립문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배를 지어 가보고, 어느 동무는 순사 몰래 그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일본 교장 선생님 귀에 들어가자, 담임 선생님은 즉시 면직 당하시고 우리는 하루종일 벌을 셧습니다. 그 후 졸업식이 끝나고 사은회 겸 총별회가 교실에서 열렸는데, 누구의 컷인지 첩관에다가 태극기를 크게 그려서 사은회가 귀족박죽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그때부터 악독하고 잔인한 왜놈들에게 항거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 작은 햇불이 나다 용감히 들었습니다.

그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는 우리들에게 신학문을 배우게 한다는 것은 선전에 불과하고, 조선 사람을 일본에 충량한 국민을

만드는 교육이라, 일본말만 가르치는데 힘써 왔습니다.

이것은 내 나이 13살 때로 지금으로부터 약 34년전 일본에게 나라 빼앗긴지 5년 되던 때로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에게서 해방된지 어느덧 5년, 오늘의 어린이들을 볼 때는, 행복하고 희망이 많은 어린이들로 본다는 것은, 나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찾고 잊어버렸던 말과 글을 배우게 되니 그 기쁨은 그야말로 하늘에나 오를 듯 할 것입니다. 태극기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하고, 또 애국가를 높이 부를 때마다, 새 기운이 뻗어 나고 새 희망이 번득



☆영원한 어린이의 동무☆ 고·방 정 환 선생

거릴 것입니다.

나는 가끔 학교 길에서 소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남녀 소학생들을 유심히 살펴 봅니다.

씩씩한 걸음, 명랑한 웃음 소리, 풍부한 지식을 가진 것을 볼 때, 기쁘고 믿음직하여 내 홀로 만족한 미소를 띄운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똑똑하고, 영리하고, 귀엽게 생긴 얼굴들입니다. 나는 어느 때는 그 소학생들을 업어주고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무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과학에 대한 것, 원자탄에 대한 것은 벌써 과거일이

고, 수소탄에 대하여 그 위력을  
보통하는 것이라든지, 운동에 관  
한 취미가 대단하여, 마라톤의  
거리며 선수 이름과, 런던 올림  
픽 대회에 우리 마라톤 선수가  
실패한 원인을 곤란 이야기 합  
니다.

세계 정치가, 위인, 발명가  
들에 대한 것도 널리 알고, 더  
욱이 귀티부인이 라둠을 발견한  
것도 노벨상에 관한 것도 자세  
히 설명하는 데는 아니 늘  
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밤 동무들끼리 산과  
들로 하이킹을 가서 분담  
적으로 식사를 준비하며,  
푸로를 정하고 유쾌하고  
절서있게 하루를 보내는 것  
을 볼때는, 그 단합하는 정  
신이 발달된 것을 칭찬하  
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서력이 부쩍 늘어서 잡  
지와, 동화책 소설책을 금  
방 읽어버립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나라 한글이 쉬  
웁고 바른 까닭으로 독서  
에 취미를 갖게 된 원인도  
되겠지만, 한자라도 더 배

워서 뒤 밟아진 우리 나라의 모  
든 것을 회복시켜, 선진 문명 한  
나라와 어깨를 맞대고 나가겠다  
는 욕망이, 싹트기 시작한 까닭  
입니다.

앞으로 새나라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 책임 있는 귀한  
 몸들이란 것을, 어린이 스스로  
 가 잘 깨닫는 듯 하였습니다.

하여간 34년 전 우리들이 어  
렸을 때 소학생과, 지금의 소학

생들은 여러가지 비교하여, 하  
늘과 땅같이 차가 심하였습니  
다.

완전자주독립국가로 새로 건  
설된 우리 대한 민국의 소년 소  
녀는, 한 나라 겨레의 귀중한  
보물이며, 외국 사람들의 주목  
의 과녁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 때라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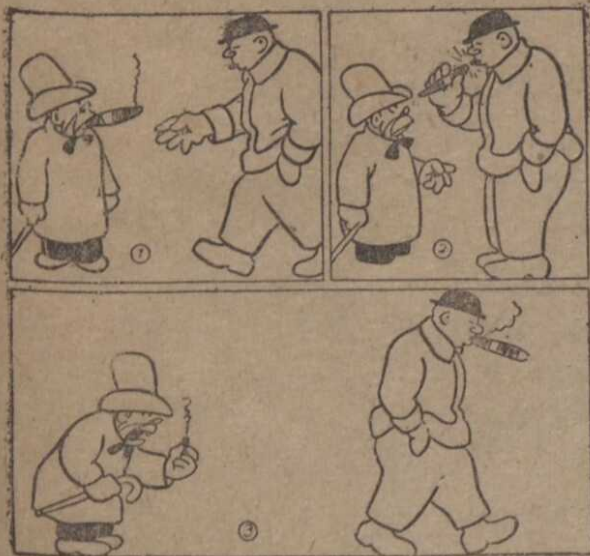
### 어린이날 노래

(어린이날 전국 준비위원회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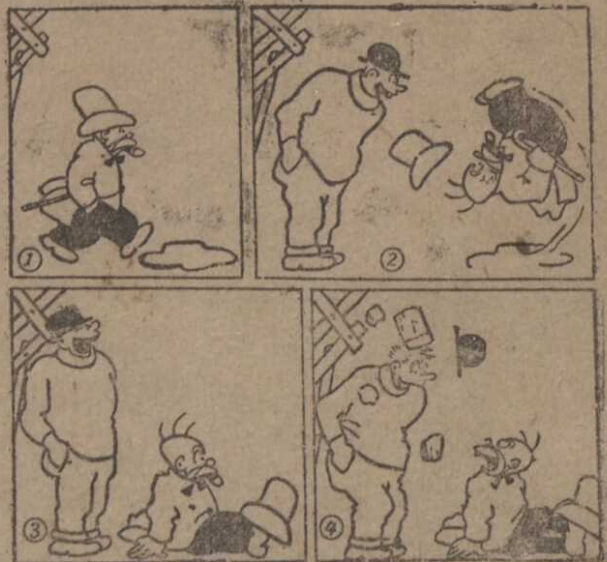
날러라 새들이 푸른 하늘을  
달러라 냇물이 푸른 별편을  
오월은 푸르고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자 자라면 새나라 일군  
손잡고 나가자 대한의 별아  
오월은 푸르고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 저런 엉터리 봐



→ 잘코사니!



## 미국의 명절과 어린이

미국 워싱턴에서 이 춘 영

해마다 오월 초닷새는 여러분이 고대 타시는 “어린이 날”이 지요. 이 명절은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안재신 방정환 선생님이 시작하여 벌써 오랜 햇수가 되나 봅니다. 아마 지금 나이 서른(30) 줄에 있는 어른들도 어렸을 시절의 “어린이 날”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경사로운 날을 이면 미국에서 돌아켜 생각하면서 “미국의 명절과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이야기 드리기로 합니다.

미국의 달력에 나타난 명절을 보면 그 유래를 유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이 나라에서 시작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명절의 특이한 점은 대개가 “어린이를 위한 날”들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듯이 이곳에서도 명절이 되면 어린이들이 뿔뿔 호강을 입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미국의 명절을 시절에 따라 설명 드리기로 할까요.

첫째로 정월 초하루를 마저하게 되는 것은 우리 곳이나 예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이곳은 이 정초보다 앞서 “크리스마스”의 굉장한 잔치를 치르고 난 뒤라 오히려 쓸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초를 “어른들의 크리스마스”라고 까지 하여 어때는 어른들의 조용한 모임이 많을 뿐입니다.

이월 열나흘이 되면 “벨렌타인”

날이 되고 하여 뿔뿔 우스운 그림을 만들어 이름 (보내는 사람의) 없이 등무들에게 보내어 누구의 것인가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배를 움켜잡고 웃게도 합니다.

다음에는 “이스터” (부활...에수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 하였다는 말의 축하, 그러하 “이스터”라는 말은 옛날 “앵글르색슨”의 불의 여신에서 왔다 할) 이달은 달(月)이 차고 기우는 것으로 정하여지다가 삼월이 되는 해도 있고 사월이 되는 해도 있습니다. (올해는 4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예배당의 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지며 학교에서는 한주일 내의 방학을 줍니다. 어린이들에게는 토끼가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하여 장난감도 토끼, 그림도 토끼, 아주 토끼가 한몫을 단단히 보는가 봅니다. 이와 함께 “이스터 알(卵)”이라고 색깔한 알(새알)모양의 캔디의 선물이 몇 볼습니다.

“어머니날”은 오월 둘째 공일로 정해져 있어 어날은 너나없이 어머니의 크고도 큰 은혜를 우리끼리 보고 또 깊이 감사를 드리는 때로, 어린이들도 어머니께 효도의 정성을 재로이 함은 물론입니다. 각 예배당과 초등학교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답고 적는 한 여름은 이렇다 할 명절도 없이 지나갑니다. 시골 농가에서는 밀타작과 옥수수과 목화 따기기에 한창이나까 명절 어부의 풀이 없을 것입니다. 기쁨의 가을이 찾아오면 농가의 일년 고성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이에 따라 어린이들의 즐거운 날이 또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시월 그믐날이 옵니다. 이날 저녁은 "켈로우인"이라 불리우는 때 많은 어린이들이 얼굴을 검정 이토 새카맣게 칠하여 흑인 같이 꾸미거나, 백다귀를 잔뜩 그린 해 글 옷을 입고, 쌍을 지어 동네집 을 돌아다니며 선물을 청합니다. 껌껌한 밤중에 이런 어린이들을 불서로 만나면 놀라게 됩니다. 나 르 도깨비를 만났나하고 밤을 흘 린 때가 있었읍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 싶이 이 세상에 어디 도 깨비가 있읍니까.

십일월의 대제 목요일은 소위 "감사절"로 우리나라 추석과 비 슷한 명절입니다. 추석으로는 지 기가 좀 늦는데 이날은 새로 개 척한 토지에서 인디안족과 추수 를 경축하던 기념날이라 합니다. 하여튼 가을의 결실에 대한 감사 를 선명에게 드리는 날로 각 가 정에서는 저녁상에 큼직한 칠면

조 점이 놓입니다. 어린이들은 여 터가지 음식을 실컷 먹기도 하겠 거니와 각가지 정난감을 즐길 수 있는데 그중에 호박으로 형형 각 색의 얼굴을 만들어 벽에 거는 것 이 많습시다. 이 때도 각 학교에 서는 대녘제의 휴일을 베풁니다.

십이월 이십사일부터 시작하 여 한주일쯤 되는 "크리스마스" 는 이 나라에서 제일 호강스럽게 지내는 때입니다. 일년을 잘 지 냈던 못지냈던 다 잊어버리고 마 음의 먼지를 털어버리며 실컷 몸 을 쉬어 세해의 힘찬 재출발을 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췌 타크러스"하라버지 (이 하라버지 는 꿀뚝으로 물레 들어오는 것이 아너라 변장한 실제 사람입니다) 를 통하여 혹은 집에서 각가지 선물을 (양말 형상으로된 크고 빨간 주머니에 넣인) 잔뜩 받게 됩니다. 집집마다 방안에는 "크리

스마스 트리 (소나무종류) 가 오 색이 영롱한 불등을 달고 있고 그 아래에는 선물 상자가 산적하 여 있으며 각색 장식의 안락 없 이 즐비하게 있어 이때는 거터 마다 찬란한 풍경을 떠읍니다. 때마침 눈이나 와서 쌓이면 그림 에 있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이때 어린이들이 실컷 먹을 수 있는 음식에는 호두, 애플 (달걀, 우유, 크림, 절당등을 잘 섞혀 기 품이 많이 나게 한 것. 아이스크림 이 아님) 대추, 자두로 만든 풍 덩, 각종 케익, 칠면조등입니다. 이터하여 "크리스마스"전후 며칠 은 어린이 들의 기쁨으로 꿈과 같이 지내갑시다.

이 밖에 미국에는 여러 국경일 (나라의 축일)이 있으나 여기에는 약하기로 합니다.

(사진은 즐겁게 노는 미국 어린 이)



## 애독자 | 아협 | 상타기

### ☆ 새 문 제 ☆

곰·원숭이·토끼·개구리·개 이렇 게 다섯 마리 짐승이 기둥에 매어놓은 줄을 하나씩 붙잡고 노는데 그중 한 줄 이 끊어졌읍니다. 누구 것이 끊어졌을 까요?

상	1등	1명	학용품 한벌
	2등	5명	학용품
	3등	15명	좋은 책 한권씩
마감	6월 20일		
발표	"소학생" 8월차		

# 우리 강산을 두루 찾아서

죽음이 제법 지터서 인제는  
여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쯤  
다운 우리 강산이 더한층 우  
리들의 마음을 끌읍니다. 그러  
나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혹은 삼팔선이 막혀서 우리가  
보고파하는 우리 강산을 마음대  
로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서 우리는 이달부터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 선생님들에게  
부탁하옵, 우리 나라 좋은 곳  
을 여행하시고 나서 쓰신 글을

받아 실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글은 기행문(紀行文)  
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소풍갔다 와서 쓰는 것도 일종  
의 기행문이니, 잘 읽고서 기  
행문 쓰는 법을 익혀 들시다.

처음에 쓰신 분은 서울 문리  
과대학 교수이시며, 한글학회  
이사이시며, 그리고 해마다 안  
협에서 모접하는 동요 작문의  
심사원이신 이 희승 선생이집  
니다. (편집부)



(이 희승 선생)

## 행주(幸州) 나드리

이 희 승

잠바에 등산모를 제껴쓰고, 스  
타킹이 없는 탕으로 무드콕 바지  
를 무릎에서 다님을 치지않고,  
가랑이를 발목까지 치명치령 할  
어뜨린데다가 내 작은 체격에 어  
울리지 않을만큼 큰 튀크사크를  
짊어지고 금강산이란 낙인(烙印)  
이 찍힌 아무렇게나 꾸부러진 등  
나무지팡이를 휘두르며 터덜씩  
터덜씩 집을 나섰다. 일찌감치 일  
어난 아이들이 모두 빙글빙글 내  
몸에 어장한 웃음을 퍼붓는다. 두  
다리에서 피맛소리가 나도록 혈  
폐덜떡 서울역에 뛰어들어가니,  
로상행 기차는 벌써 개찰이 거진  
끝날 판이다, 부비대기를 쳐서 객  
차 오르고 나리는 문에 비집고 클  
어가서, "선채로 한 반 시간이나

갔을가, 두어차례 정거를 한 다  
음, 차가 농곡 정거장에 우뚝 머  
물렀다.

공일이라 그러한지, 정거장은  
별로 크지 못하건마는, 창간마다  
사람을 꽤 많이씩 배알아 놓는다  
약속한 친구가 내리나 하고, 기  
차를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더듬  
어 훑어보니 그 몸등아리 참 육중  
스럽기도 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  
끼게 된다. 그만이나 하기에 그  
많은 사람을 뺏속에 담아 넣고,  
빈몸모양으로 제비 같이 바람 잘  
이 달리는 것이 아닌가.

사람 무대기 품에서 하나씩 들  
씩 친구자 튀어나와서,

"아침 잠꾸러기 자네가 어떻게  
왔나."

"자네 어느 품에 끼어 왔나."  
이 사람 저 사사람 유쾌한 말  
씨로 인사를 퍼붓는다,  
"암 그러게 용하지. 그래도 내  
가 오늘은 밤기 전에 일어나서  
은 집안을 구동을 시키고 야단  
을 했단 말야. 다른 뎀 못 가  
도 괜찮지만. 여기야 안 올 수  
있나."

약속한 사람이 반 다쓰는데 한  
명이 안 오고 단다섯 사람.

세제는 아주 만편이다. 벨딩름  
아스팔트 위로 전자, 택시, 파랑  
배쓰, 노랑승합차, 적프, 트럭,  
자전거까지 뒤섞여서 먼지를 휘  
날리며 오락가락 뒤범석질을 해  
서 사람을 실어 날려도 이두 못  
다 실어 태어서, 아침 저녁이면  
사람 행렬이 북닥북닥 구비기 끊  
듯하는 서울 장안, 매체 해방 후  
어다서 그렇게 꼬여들었는지, 사  
람사태에 정신이 빠질 지경인 요  
새 서울 장안의 풍경이다. 그

# 동요 두 편 김상옥

## 봄

소쩍새야 울지마  
소쩍새야 울지마

악아버지 오시기 전에  
진달래꽃 피겠다

진달래야 피지마  
진달래야 피지마

울애긴 봄을 타는데  
진진 해를 어찌누

악아버지=아기아버지 (경상도 사투리)



## 안개 낀 항구

안개 낀 항구에  
등불 하나  
안개에 젖어서  
멀리 보이네

등불은 떡국집  
유리 호얏불  
땃사공 혼자서

떡국을 떡네

뚜우우.....

어디서 떠나는  
땃고동 소리  
안개에 잠겨서  
멀리 들리네



서 나 같이 뚝뚝지 못한 사람은  
해방 후로만 몸시계를 씻어나 잃  
어버리고, 미국 만년필이 두개,  
돈은 이너지만은 옥철 권월 소매  
치기에게 전사를 하였다. 새로 산  
가방을 두번이나 찢기어서 편지  
도 한 봉투기 뽑아 갔으니, 그것  
으로 뒤지나 하였는지 서울이 남  
이란 말이 옛날부터 있었지마는  
요새 서울 이야말로 이만저만한  
남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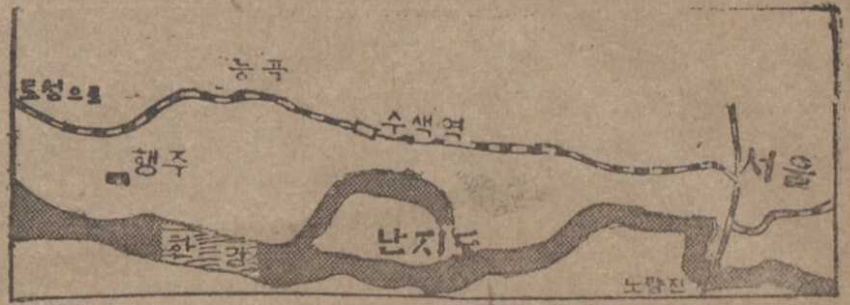
이 낭에서 튀어나와서 지금 만  
세상 속에 들어와있다. 식전부터  
꾸물거리던 하늘은 철쭉이상이나  
벗어져서 이따금 이따금씩 지나  
가는 흰 구름장과 대조하여 하늘  
빛도 서울서 보는 것보다는 유난  
히 푸르다. 이 근처에서는 그다  
지 높은 산은 볼 수 없고 모두 납  
작스름한 야산 뿐이다. 그리고 한  
편으로는 넓으나 넓은 벌판이 웅  
맹그러니 터져 있어서 바라보기  
만 해도 어찌 허전허전한 것 같  
고 내 작은 몸도 몹시 부풀어 올  
라서 커지는 듯 싶다. 마음도 들  
과 하늘과 같이 특 트이는 것 같  
다. 아무런지 시원스러워 좋다.  
장안에서처럼 종종 걸음을 칠 필  
요도 없고 조짐조짐 맘을 못 놓고  
다닐 필요도 없다. 흥정흥정 우쭐  
우쭐 가지 각색의 걸음 걸이로 걸  
어 봐도 좋다. 모든 아직 다 내지  
못했으나 보려는 벌써 거진다 패  
에서 이렇진 이삭이 훈훈한 바람  
에 능질능질 물길치고 있다.

정거장 건물과는 반대되는 서  
남쪽으로 살래 같이 곧은 길을 만  
시간이나 남짓이 걸어가니, 작그  
마한 산이 옷자락처럼 기슭을 여  
미어, 그 골짜기 안에 꽤 큰 마을  
이 안겨 있고, 그 한참기가 미끈

히 흘러내려가다가 고트머리가  
야무지게 매쳐 소스라친 위에는  
별장인지 요릿집인지 서너 채 날  
아갈 듯이 앉아 있다. 그 아래가  
바로 한강 줄기니, 이곳이 유명  
한 행주 나무터다. 용산이나 산  
개브다는 상당히 넓은 폭이다가,  
물빛도 약간 탁한 맛이 돌고, 여  
기저기 몇척의 거루가 올라오지  
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거의  
한자리에서 물매미 모양으로 뱅  
뱅 돌아 다니며 있다. 낚시질을  
하는지 그무질을 하는지 세가 떠  
서 잘 보이지 않는다. 저 멀리서는  
누르고 붉은 돛, 희유스름 거르  
메메한 돛 여러가지 빛으로 노닥  
노닥 기운 돛들이 띄엄띄엄 오륙  
척이나 흘러져서 훗훗한 서남풍  
에 배가 부들부들 불려서 드리달  
아 온다.

우리 일행은 음식점을 찾아 들  
어가서 바루 요 며칠 전부터 나  
기 시작한다는 행주의 명산(名  
産) 용어회를 막걸리와 함께 맛  
있게 먹어댄다. 나는 본래 술  
을 먹은 줄 모르지마는 목도 축일  
겸 용어회도 먹은걸, 종치도 들  
을걸 잘못잘못한 한 잔 텃이나 마  
셔 보았다.

장변 산모퉁이를 휘돌아서 권  
도원수(權都元帥) 기공비각(紀  
功碑閣)을 찾아 갔다. 비각적이  
를 청해다가 잠을쇠를 열고 들어  
서니, 섬들에 고색(古色)이 창  
연(蒼然)한 이끼 흔적이 짙어  
있고, 들에는 풀이 자라서 더부  
룩 더부룩 우거져 있다. 비각 서  
편에도 비가 하나서 있으니, 권  
을(權樞) 도원수의 사적을 간단  
히 기록한 글이 순한문으로 새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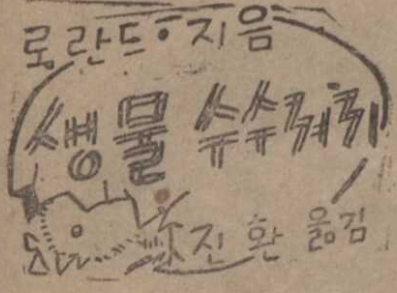
이 비각 동쪽으로 수백 메터를  
떨어져서 행주산성(幸州山城)이  
있으니, 이 산은 별로 다른 산과  
줄기가 다른 일이 없이, 한 옆에  
강을 끼고 평양 가운데에 상당히  
높이 솟아 있다. 주위로 돌아가  
며 턱두리가 매우 가팔라서 아래  
에서 이산 마르티오로 올라가기  
에는 어느편으로부터 오르든지  
상당히 힘들게 되었다. 한강 줄  
기로 감들려 있는 낭떠러지는 더  
욱 험하여 한층 더 오르기 어렵  
게 되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권  
도원수는 이 지세(地勢)를 이  
용하여 이산 꼭대기에 진을 쳤었  
다. 우리 나라가 왜병에게 여지  
없이 고달을 받을 때에 도원수는  
위선 진라도진산(珍山) 고을 이  
현(梨峴)에서 큰 승리(勝利)  
를 거두고 다시 서울 회복하기 위  
하여 이곳으로 왔던 것이다.

서울과 벽제관(碧蹄館)에서  
은 왜병은 이편 빌판으로부터  
인천 부평(富平) 등지(等地)에  
서은 왜병은 장을 건너서 장변 다  
랑이로부터 개미 매 같이 까맣게  
기어 올라왔었다. 더구나 무서운  
것은 총이었다. 그 당시 우리 군  
대는 총이 별로 없었다. 있어도  
그 수효가 적었다.

총을 쓰며 기어 올라오는 왜병  
매를 우리 군사들은 산 꼭대기에  
서 화살과 돌볼매로 지저 내리무

췌었다. 이 싸움에 왜병들은 화  
살과 돌볼매를 맞고는 낭떠러지  
아래로 강벼랑으로 수없이 떨어  
져 죽고 빠져 죽고 하였다. 우리 편  
에서는 군사 뿐만 아니라 여녀 사  
람도 여자도 많이 동원(動員)된  
이 모리악을 쓰고 싸웠었다. 여자는  
지마폭에 물을 모아 날려 왔  
었다. 행주치마가 그 때에 처음생  
겼다 하며 그래서 지마 이름도 행  
주치마라 한다는 이야기가 전하  
고 있다. 어쨌든 이 행주 산성 싸  
움에 우리는 큰 승리(勝利)를 얻  
어서 왜적에게 지명상(致命傷)을  
주었다. 서울을 다시 회복하였을  
뿐 아니라. 국운(國運)을 다시 들  
이켰으니, 권도원수의 공이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 설로 임진 왜  
란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  
린 이는 바다 싸움에 이 순신(李  
舜臣)장군기요, 육지 싸움에 권  
을 도원수였었다. 이 두 어른이  
안제셨더라면 어찌할런 하였나,  
참으로 아슬아슬 하였었다. 생각  
만하여도 소름이 끼친다. 기공비  
앞에 서 있으니 도원수의 숨소리  
가 들리는 듯, 그 위엄 있는 얼굴  
이 나타나는 듯, 고개가 저절로 숙  
어진다. 눈을 한참동안 감고서 그  
때의 싸우던 광경을 그려 보다가  
이다음 다시 또한 번 찾아오리라  
작성하고 설성한 잔을 술을 도리키  
어 비각문을 나섰다. (끝)



# 잎은 어떻게 자라나?

여름에, 새싹 나뭇가지를 살펴 보면, 잎꼬리가 가지에 붙어 있는 자리에, 조그마한 초록 빛 봉오리가 보입니다. 이 봉오리는 이듬해에 잎이 될 것입니다. 가을에 나무잎이 떨어지고 난 뒷걸에 보면, 이들 겨울 봉오리는 잎자국 바로 위에 붙어 있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에는 두터운 비늘잎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늘잎은 한장씩 튼튼히 포개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곤충이라든지 또는 다른 해충 벌레들이 싫어하는 진물 이 곁에 발라져 있습니다.

이 비늘잎을 벗겨내면 먹잎이 부드러운 잠자리 위에 웅크리고 있지요. 이것을 잘 살펴보면, 잎 봉오리가 크고 잎꼬리도 똑똑한 "상소리나무" 가 가장 적당한 것입니

다. 봄이 되어 나무에 진물이 오르면, 작은 부커가고, 그리고 피어 납니다. 비늘잎은 한쪽으로 물리워져서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겨울 나무를 볼 때, 그 모습과 빛깔과 크기와 그리고 겨울 싹이 부커 있는 자리로 보아서 분간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가 잎자국을 만드는 것은, 이를때면 수술하는 셈입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나무의 진물(사람인 경우면 피와 같은 것)이 흐르지 않는 것은 의사 선생님 들도 시새워할 지경입니다.

가을이 가까워 오면 나무의 진물은 점점 동이 나서 잎까지는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터하여 잎은 이울고 떨어지지만 그다지 상처를 입지는 않고, 다만 맨살이 나와 있

는 곳에 깨끔하고도 물기 없는 엷은 살갗이 덮여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은 밖으로부터 잎줄기의 꼬트리를 통하여 안쪽에 생긴 것이므로, 진물이 흐르는 줄은 점점 막히고, 엷은 살갗이 완전하게 덮이는 것입니다. 고요한 날에는 잎이 지지 않지마는 바람이 몹시 불면 또는 서리가 내리면, 노지개가 지날 때면 나무잎은 흩어져 버립니다.

"늘 푸른나무"나 "전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푸르고, 5, 6년 동안 그 때로 있으며, 잎은 나무

가 자라남에 따라 이따금 떨어질 따름입니다. 가을이 오면 나무잎 빛깔은, 노랑빛 유жат빛 빨강빛 자줏빛 그리고 밤색으로 달라져 갑니다. 이와 같은 가지가지 빛깔의 변화는 잎이 이울어 갈 적에 나타나는 것으로 잎집살과 잎줄기를 의 빛이 없어지기는 맨 나중 일입니다.

이숙한 숲 속에 바람도 없는데, 여러분은 나무잎의 해골을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도 슬픈 잎의 마지막입니다.



★ 장편 소설 ★

# 채석장의 소년

제 4 회

## 염상섭

(그림 김규택)



지금까지 이야기 줄거리

늦은 여름, 제법 선들바람 부는 날. 채석장 넓은 마당에서 소년들이 풋볼 치르는 소리가 뱅뱅나기 시작했었는데, 한편 완식이라는 소년은 어머니와 합쳐 피약밭에서 돌을 깨뜨리고 있었다. 완식은 그것이 부럽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나 그냥 일에만 열중했었는데, 별안간 풋볼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다.

그 이튿날, 또 그 다음날도 채석장에는 완식이 어머니만 혼자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 날, 풋볼 치른 아이는 규상이, 봉수, 영길이었는데,

마음이 착한 규상이는 학교를 파해 가는 길에 가보려고 했다. 봉수는 반대하는 영길이 주먹이 무섭기도 했지만 규상이 말대로 같이 가보기로 했다.

규상이는 잘사는 집 아들이었으나, 몇해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제도 밑에서 자라고 있었다.

완식이네 집은 방공굴이었다. 그리고 굴 앞에는 참외 가게가 있었다. 완식이는 전채편으로 남산 국민학교 5년까지 다녔으나, 집 형편으로 부득이 그만두고 벌어들여서 다음 학기부터 학교에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이었다.

규상이는 완식이의 특독하고 팔들한 마음씨가 좋았고, 그에게 유난히도 동정이 갔던 것이다. 그래서, 완식이의 다 꿰진 신발을 보고 어느 날 규상이는 제 운동화 한 켤레를 갖다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저녁 때 채석장에서 돌아온 완식이 어머니는 운동화를 가지고 규상이 집을 찾아와서, 기어히 뒷마루에 그냥 놓고 가버렸다. 규상이 아버지도 이말을 듣고, 아무리 어려워도 제 앞가림을 차리는 완식이 모자를 칭찬하시며, 도로 제집에 들 시켜 갖다 주라고 하셨던 것이다.

## 화 해 (상)

1

“봉수야 있다 굴 집으루 참외나 사 먹으러 갈까?”

철봉이 제 장기(長技)인 봉수가, 철봉에 매달려서 연거퍼 활각활각 재주를 넘다가, 가쁜 숨을 들리려고 포푸라나무 그늘로 나와 앉자니까, 이쪽 철봉을 위에말을 타고 앉았던 영길이가 내려다보며 말을 붙인다.

“맘대루 하렴. 왜 하필 굴 집

으루 참외 사 먹으러 기던.”

봉수는 코웃음을 쳤다. 다른 아이들은 “굴 집 참외”란 무슨 참외인지 영문을 모르나 영길이가 봉수를 놀리는 수작인 것만은 눈치채고 멧없이 심긋 웃는 아이도 있었다. 영행이가 무거운 영길이는 철봉은 “풋팔”과 달라서 도저히 봉수를 당해내지 못하는 터이라, 철봉에 매달린 봉수의 몸이 착착 휘며 나비춤 듯이 노는 데에, 땀 둘러싼 아이

들이 발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부럽든지, 저도 한 번 아이들 앞에 재주를 피워보자고 이쪽 철봉에 매달려 본 것이라서, 일향 아아들의 갈채(喝采) 커녕 주의도 못 끌고 말았으나, 혹은 그것이 분하고 시기가 나서 봉수를 돕어 잡아다니는 소리를 하는가도 싶었다.

“이 자식 큰 소리 한다. 대장 따라 굴 집 참외나 얻어 먹으러 다니는 자식이, 뭐 이찌구어제?”

공연한 생트집이다. 일전에

규장을 따라서 체석장의 소년을 찾아갔던 것을 영걸이가 물기에 그 적이 방공굴 속에서는 살벌해도 참외장수를 하고 잘 살더라는 말과, 규장이 집에서 참외를 사다가 먹어보니까, 맛이 유난히 좋았더라는 이야기를 들려 준 일이 있는데, 무엇에 심사가 났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물썩 꺼내서 비교하는 것이었다.

“명정 노릇을 하든 내장 노릇을 하든 데 아랑곳이나? 오 절앞 넓은 소리 그만둬.”

“이 자식 봐라!”

소리와 함께 영걸이는 철봉에서 툭 튀어나온다. 두 무릎을 꿇고 앉았던 봉수도 발딱 일어나며 방위(防衛)의 자세로 딱 버티었다. 여러 아이들은,

“옥학년 ‘가다’가 또 ‘이 식덴’다!...”

하는 생각에 절도 나고 구경거리다. 발 듯이 눈들이 뚱그려지며 바라보고 있다.

“전방전 자식!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전망저켰니?”

영걸이는 봉수가 규장이 편으로 붙은 것도 께쩍한데, 규장이 편이 될 뒤로는 전의처럼 고분고분히 제말을 잘 듣지도 않고 맞서는 말이 아니요운 것이었다. 봉수는 아무래도 할살 아래 요기가 눌리는터라, 두 주먹을 부루퀴고 덤비는 영걸이에게 마주 대들기는 하였으나 얼굴만 발개지며, 당장 우박이 내릴 그 주먹을 막

아낼 것이 급한 생각에, “이 자식아” 소리 한마디 내보지 못하고 눈을 흘겨만 본다. 따는 봉수는 동무를 “이 자식아”하고 부르는 입버릇이 없기도 하지마는, 맞서는 기세면서도 주춤하고 수세(守勢)를 취하니,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는 공세(攻勢)로 덤비는 영걸이보다는 풀이 꺾여보여 색색하거나 통쾌한 맛이 없다.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은 봉수에게 편을 들고 그놈의 트레바리 영걸이를 코가 남작하게 한대 갈겨 주었으면 시원하겠다고 생각들 하였다.

“임자식! 너 요새 누구 세를 믿구 함부루 버릇없이 대드는 거냐? 이 주먹 맛을 으레 못 파서 그러는 거지?”

말이 떨어질 새도 없이 딱하고 한대 올라가자, 봉수의 광대 뼈개가 벌개지며 당장 부풀어 오르는 것 같다.

“내가 뭐했다구, 이 자식이 캐니 가만 있는 사람을 때리는 거야?”

봉수는 눈썹불이 확 나더, 여러 아이들이 보는 데서 뺨을 얻어맞았다는 창피하고 분한 생각에, “이 자식!” 소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며 몸부림을 치고 덤벼들었다. 그 사품에 봉수의 주먹도 영걸이의 턱을 치받았으나, 턱을 치받힐 것에 한층 더 기증이 난 영걸이의 주먹은, 와 달려들어선 달리는 아이들 틈으로, 또 봉수의 머리위 등줄기를 서너 번이나 우벼갈졌다.



철봉을 에워싸고 못 손질이  
공중을 휘저으며 한바탕 북작대  
다가, 간신히 두 아이를 끌어  
달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간호당  
번(看護當番)이 뛰어왔다.

“웬들 그래? 누가 싸우니?”

뛰어오는 간호당번의 몸은 우  
글우글하는 아이들 틈에 끼워 안  
보이나, 규상의 목소리만은  
영길이도 알아듣고, 슬며시 저  
편으로 피하여갔다.

“속학년 가다야...”

“가만 있는 박 봉수만 애매하  
게 걸렸단다.”

아이들이 제각기 제끼리는 소  
리를 듣고, 간호당번의 완장(腕  
章)을 낀 규상이는, 벌써 알아  
차리고 부리나케 영길이부러 찾  
았다. 오늘 마침 규상이는 간호  
당번이 되어 운동장을 분주히  
돌고 있던 길이다. 저편 왜나무  
밑으로 가는 영길의 뒤를 쫓  
아가며, 규상이는,

“이 영길! 이리 좀 와.”

하고 불렀다. 규상이와 정면충

돌이 하기 싫어서 슬슬때던 영  
길이는 마지못해 돌쳐서며,

“혈말 있진, 너 와서 말하렴.  
간호당번이면 제일이나? 오  
너라 가너라 하구.....”

하며, 버티었다. 여러 아이가  
보는 데서 뽀내보여야 체면(體  
面)이 아니 깎기겠다는 생각도  
있지마는, 당번선생 앞에 꺼들  
려갈까 보아 좀 쪼끔하기도 하  
였다.

“너 왜 그렇게 비겁하냐? 이  
불 속에서 활개치기서, 인제  
아니까 아무 것두 아니구나  
!”

규상이는 노해 보이지도 않고  
타 일르 듯이 점잖게 나무랬다.  
아무리 일학년 아래라 하여도  
동갑배오 경우 맑은 규상이한테  
는, 말로 따지서는 한수 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도 낼 수가 없  
으니 늘 이 아이 앞에서는 머리  
가 숙는다. 더구나 오늘은 간호  
당번의 완장을 끼고 있으니, 품  
짝 할수 없이 취체를 당하는 것

이요, 훈계를 받게 되었다. 그  
러나 영길이는,

“뭐 어찌? 그 자식 요새는  
나구 말두 잘 안하려들구, 아  
니꼬운체를 부리니까 한대 잘  
렸기루 어쩐단 말야? 심자를  
러면 누구나 같기는 거지.”

하고 코웃음을 차며 동무들에게  
이것 보라는 듯이 두 주먹을 엉  
덩이 깨에다 대고 딱 쳤다.

“잘 갈졌다! 하지만 이왕이  
면 날 갈길 일이지 만만하니  
봉수냐? 너 나구 틀렸으면  
나하구 얘기지, 분푸리를 왜  
그 애한테 하느냔 말야? 대  
관절 분할 건 뭐냐?”

규상이가 눈을 똑바로 뜨니까  
영길이는 말이 막혔다.

“너군 얘기가 안 돼! 있다  
굴 집으루 참외나 먹으러 가  
자!”

영길이는 커다란 입을 떠죽하며  
픽 웃고 돌쳐서 간다.

“그러지 말어! 그 버릇을 고  
쳐야 해!”

### ○심부름

어머니 “애 복동아, 심부름 갔다  
오너라. 전차 자동차 다 지나  
가거던 가거타.”

복동이 “예.”

한참 만에 복동이 되돌아 와서  
복동이 “어머니 암만 기다려도  
다 지나가지 않아, 그냥 왔에  
요.”

어머니 “.....”(서울 방산교 5년  
김 성천)

01+1=1

선생 “돼지 한 마리 있는데 거기



에 호랑이 한 마리 가져오면 몇  
마리 되느냐?”

생도 “아이구, 선생님두 호랑이  
가져오면 돼지 잡아 먹으니 역  
시 한 마리지요.”

선생 “.....”(서울 광희교 5년

김 국립)

### ○지각한 이유

선생 “너 오늘 또 늦었다. 웬 일  
이나?”

규남이 “예, 차가 구렁에 빠졌기  
때문에.....”

선생님 깜짝 놀라며,

선생 “그래 너 어디 다치지나 않  
았니?”

규남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저 구경만 했는걸요.”

생도를 “하하하”(청하교 6년 김  
정식)



규상이는 동무의 뒤에다 대고 한 마디 들찌우 듯이 하였으나, 당번 선생께로 끌고 갈 생각은 없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저 버릇이 없어질까? 하며 가엾은 생각이 들어 멀저니 뒷모양을 바라보았다.

규상이는 봉수를 이리 저리 찾아다니다가 운동장 끝 목책 밑에서 만났다.

“그 따위하군 애초에 아랑곳을 말어.”

한쪽 뺨이 벌겋게 부풀어 오른 동무에게, 아프지 않으냐고 묻기가 도리어 안된 생각이 나서, 규상이는 이렇게 위로로 하여주었다.

“누가 알은체나 한다던, 공연히 지근덕어리구 뎀비는 데야! 그 따위루 기다를 피다기는 인제 큰코 다치지.”

봉수는 아직도 분이 식지않아 입을 악물고 한테를 바라보며 앉았다.

“제니 나뎀에 똥액이로구나! 어떻게든지 굴뚝을 못하게 제독(制毒)을 한번 뉘야 하겠는데!...”

하고 규상이가 코웃음을 치려니까,

“나두 이것만 세면 문제 없다만...”

봉수는 뺨과 머리를 만지던 손으로 주먹을 쥐어 내 흔들며, “두구 봐라! 아무래두 내, 권투선수가 돼서, 그 늙의 대자리에 흑이 가라앉을 새가 없이 해줄테니!”

하고 분개를 한다.

“애, 아서라! 가뜩이나, 속

된 강정같은 멍렁구리 내가리가, 어떻게 되라구!”

하고 규상이가 웃는 것을 보고, 봉수도 마지 못해 따라서 피 웃으며, 조그만 주먹을 슬그머니 폈다.

이런 일이 었은 뒤로 세 아이의 사이는 점점 더 버러졌을 뿐 아니라, 혐악한 고비에 이르렀다. 규상이는 영길이를 만나도 의면을 하였고, 봉수도 한동리에 사는 영길리와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학교에 울썩 갈썩 길을 돌아 다니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영길이는 점점 더 기를 펴고 제 위에는 사람이 없는 듯이 끈땀짓을 하고 거드럭어리는 꼴이 한층 더 보기 싫었다. 위선 저의 패를 늘려서, 이 패를 제 끝에 절끔하게 만들려는 계곶속인지, 요전까지도 저 의꺼리 찢질을 하고 으르렁대던, “찌름대장”이니 “이팔”이니 하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가다들과 어느틈에 그렇게 단짝이 되었는지? 제각기 조무래기 부하들에게 응위가 되어서 어깨를 얼짜안고 다니는 꼴이 가관이였다. 턱 걸리기만하면 한 번 혼을 내겠다는 위협이요 시위인

## 동요 강물 한 인현

두 손으로 떠 보면  
하얀 강물이,  
버리면은 또 다시  
파레집니다.



것이 뵈히 보이지마는, 규상이는 제 멋대로 해보라지 하고 봉수와 코웃음을 쳤다.

“그간놈들 한뫼음이 돼서 다 뎀비기루 무서울 것 없다. 우리 반 칠십 명을 총동원시키면, 그간놈 열아문 못당해 내겠나마는...”

규상이는 반장이요, 절반 아이들에게 신앙이 있느니만큼 그만한 자신도 있었으나, 아무쪼록은 이 편에서 피하여 왔다.

## 2

이러 구터 개학한지도 한 달이 넘어, 반일만 공부 시키던 것도 벌써 끝나고, 여섯시간 일곱시간씩 하는 오륙학년은, 늦은 가을 해가 뒷산 마루에 걸렸을 때나 파해가게 되었다. 오늘도 다섯식나 되어 하학종을 쳤다. 그러나 반장인 규상이는 알

는 봉무를 제 집에 데려다 줄 소임이 남아있었다. 책보를 짜면서들도, 모자를 접어 팽개를 치고, 책상 위로 뽕박박질을 하고... 우당탕탕 뽕박박질을 하는 속에, 규상이는 부반장 김준식 이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아까 맞추어둔 봉수와 장영준이가 이리로 모여왔다. 장영준이는,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졸도를 하여 소사실(小使室)로 업어다져 누워둔 박창규의 짝이다. 이 아이를 앞 세우고 저의 집에 데려다 주려는 것인데, 부반장은 책임상 따라간다는 것이요, 봉수는 규상이를 따라 나서는 것이었다.

“자, 가자!”

하고 규상이가 앞장을 섰다.

네 아이가 소사실에를 가보니 박창규는 그저 썩근썩근 자고 있었다. 흔들어 깨우니, 병으로 쓰러졌던 것이 아니요, 이틀이나 굶고 너무 허기가 저서 그랬던 것이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으며 기운이 아까보다는 난 모양이나, 우선 물을 달래더니 한 사발을 벌떡벌떡 쥔다. 점심은 먹었으니 속이 비지는 않았어도, 그 대신 구갈(口渴)이 심한 모양이었다. 아직도 해썩한 얼굴과, 짙다 질린 눈이 광하니 움쭉 들어간 것을 보고는 모두들 가없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 부반장과 영준이가 좌우로 부축을 하고 규상이와 봉수는 앞 선 아이들의 책가방을 거들어주며 뒤따랐다.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거진 빼었으나, 아직 남은 아이들은, “꽃뽕”



도 지르고, “라켓”만 가진 계집애들이 “네트” 없이 공을 치기도 하고 있었다.

“저 왜 저러니?”

“이틀찍이나 굶구 와서 공부하다가 쓰러졌단다!”

“응? 가엾어라!”

“어쩌면! 저어머니 아버지 없니?”

계집아이 자내아이 할 것 없이, 규상이의 일행을 저만큼 바라보며 우중우중 서서 속살대는 것이었다. 창규는 허전허전은 다리로 간신히 꺼들려 가는 것이었다.

운동장을 지나서 학교문을 바라보며 팝드리려던 네 아이들은 멈춰 서니까, 뒤를 출출 따르던 아이들도, 구경 삼아서 타기 보다는 가없어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려고 기웃거리며 서성거리는 것이었다. 창규는 처음 나섰을제 보다는 아랫가 더 풀려서

걸지를 못하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이었다. 1

창규는 어제도 얼굴이 유난히 해썩하였지마는, 오늘은 눈이 움쭉 패이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며, 교실에 드나들제 비쉴거리는 것을, 옆의 아이들은 헛(蠅)똥가 무슨 병인가 하고 무심히 보고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그러자 배시감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신 뒤에 점심물을 먹느라고 뽕박박인 관인데, 비쉴 비쉴 교실 밖으로 나가던 창규가 복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와야 떠들자, 규상이와 락 나가서 꺼안아 올리며 하니, 무거워서 혼잣힘으로는 안아올릴 수도 없었지마는, 의외로 제풀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아무렇지두 앓어. 괜찮어.” 하고 창규는 다시 운동장으로

나가려고 비틀거리며 발을 떼어 놓았다.

“머리가 아픈냐? 배가 아픈냐?”

“아니, 괜찮어. 집으루 갈테야.”

창규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으나, 기운이 쪽 빠져서 책보를 가지러 교실로 다시 들어올 수도 없고, 선생님의 가서 조퇴(早退)하겠다는 말을 할 기력도 없어서 멀거니 섰기만 하였다. 그러자 부반장 준식이 나타나오고, 창규의 짝인 영준이가 달려 왔었다.

“박 창규, 너 배가 고과 그런 거지? 들어 가자.”

한책상에 앉았으니만큼 영준이가 잘 맞추어냈다.

그제서야 규상이는 정신이 반짝 들며, 하루 의외로 듣기에도 창피스러운 말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 죽는 것이요, 다음이 도둑놈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다음 가게 무서운 것을 지금 처음 본 듯 싶었다. 당장 한 교실 안에서 공부를 하던 동무가 배가 고파서 쓰러지다니 세상에 이런 무서운 일도 있는가 하고, 규상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비참한 것을 지나 무서웠다.

“들어가 밥 먹자!”

규상이는 지금 딱 보채기를 펴 놓은 점심을 먹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창규는 도리질을 하며 눈을 멀거니 뜨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창규에게는 아이들이 밥 먹

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싫은 것을 지나서 무서웠다.

“어디 댄 방으로 가서 누자. 소사실루 가서 더운 물부터 멕이자.”

규상이는 창규가 부끄러워서 그러는가 싶어서, 동무들더러 먼저 데리고 가라하고, 자기는 얼른 뛰어들어와서 점심밥 그릇을 다시 씻가지고 뒤따라 갔다. 이 텃석통에 소사실까지 쫓아왔던 봉수도 준식이 영준이들도 제 “벤또”를 소사실로 가지고 와서 창규에게는 제일 맛있는 규상이 것을 먹여가며 다섯이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창규에게 점심을 먹이고 나니, 시전한 끝이라 더 날치가 되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담임 선생님도 내려와 보시고,

“공부는 안해도 좋으니, 자게 가만 내버려 뒀라. 한잠 자고 기운을 차리거던 너희들이 데려다 주고 집 안 형편을 물어 봐라.”

고 규상이에게 일르셨었다.

그래서 창규는 제시한 공부를 하는동안에 잠을 싫진 자고 났으니, 인제는 기운을 차릴 것 같은데, 워낙 어린 창자가 이틀을 굶은 뒤라 탈진이 되었는지 갱신 못하는 것이다.

“누가 업었으면 좋겠는데...”

규상이는 가깝해서 이런 소리를 하였으나, 저도 힘에 부치거니와, 돌아와야 창규를 업을만큼 기운풀 있는 아이라고는 없다. 하는 수 없이 겨우 걷는 아이를, 중병자처럼 찬찬히 끌고

나가는 주 밤에 없었다. 그러나 문턱까지 내려오려니까, 뒤에서 쿵 쿵 쿵 뛰어드는 발자취가 나머지,

“박 창규 아니냐? 왜 그러니?”

하고 달려 드는 것은 영준이였다. 이쪽으로 등을 지고 “꽃뿔”을 지르며 있던 영준이는, 창규가 끌려간다고 누가 귀뜸을 해주는 소리에 제편—제 “부하”가 적(敵)에게 불법 나치(不法拿致)나 당하여 가는 듯 싶어서, 운동장 가운데 내던졌던 책가방을 움켜쥐고 쫓살 같이 내달아 온 것이었다.

“왜 그러니? 어디가 아픈냐?”

눈에는 누구보다도 규상이와 봉수가 먼저 떠났다. 정녕 이 자식들이, 저하고 친하고, 축구를 같이 하러 다니는 “부하”를 두들겨 패서 저 모양을 만들어 가지구 집으로 끌어들 주나 보다는 짐작이 불현 듯이 들며, 주먹을 쥐고 부루를 떨며, 좌우를 둘러다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대꾸를 하는 아이는 없다. 영준이를 좋아하는 아이는 창규를 빼놓고는 이중에 하나도 없다.

박태원 선생 지은 역사소설

## 이 순신 장군

일찌기 “소학생”에 언재되어 독자의 감격을 자아내던 우리 민족의 자랑 이 충무공의 이야기. 지금 재판을 파는 중입니다.

(책값 320원)

아 협 발행

정작 창규조차 말할 기운도 없  
고, 부끄러운 생각에 잠자코 말  
았다.

“너의들 애를 어떻게 하는 거  
냐?”

영길은 내지르고 규상이와  
봉수에게로 달려들려하였다.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넌  
아랑곳 말어!”

부반장 김 준식이가 편잔을  
주었다. 전교(全校)에서 “가다”  
인지 “어깨”인지로 유명한 영길  
이가 평소부터 못마땅 하였지마  
는 저번에 봉수를 때려주고 규  
상이와 아주 틀린 귀로는 준식  
이도 이 아이를 대거리 하기가  
싫었다.

“이 지식! 날더러 아랑곳을  
말라구? 왜 애가 이렇게 됐  
느냐 말야?”

영길은 대짜 고짜 주먹을  
꾸르켜며 준식이에게로 달려들  
려 하였다.

“애, 그렇게 친한 세면, 밥을  
며칠씩 굶어서, 공부하다가 쓰  
러지는 것투 몰루구 뭘했었니  
? 네 펜토라투 맥일 일이지  
! 우리 더러 어쨌단 트집이  
냐?”

준식이는 창규의 왼편 겨드랑  
이를 잠간 놓고 대들었다.

“뭘?.....”

거기에 가서는 영길이도 움찔  
해지며 멀거니 창규의 해쓱한  
얼굴을 다시 치어다 본다.

“애들이 어떻게 친절히 해줬  
다구! 왜 애들한테 댜버니  
?”

창규도 보기에 하두 딱해서,  
텅 빈 속에서 허청 나는 힘없는  
목소리가 간신히 흘러나왔다.

“응? 정말야?... 너 배가 고  
짜 그러니?”

영길이도 동무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처음 보  
는 일이라, 너무나 어이가 없기  
도 하거니와, 그런 줄은 모르고  
이 아이들에게 시버를 건 것이  
무색해서 한풀 꺾인 말씨였다.

파우로 부축인 아이들은 잠자  
코 창규를 끌고 걸기 시작하였  
다. 머쓱해져 영길이는 규상이  
나 봉수와는 얼굴이 마주칠까  
보아 아무쪼록 앞장서 따라가  
며,

“그럼 어더 가서 뭘 먹여가지  
구가자.”

하고 발론을 한다. 친하다는 자  
기는 뒷줄로 물리시고, 서로 말  
도 안하는 규상이 편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 먼목 없고 질듯  
싫어서 분 하였다. 아무래도 제

가 채를 잡고 나서야만 걱정이  
풀릴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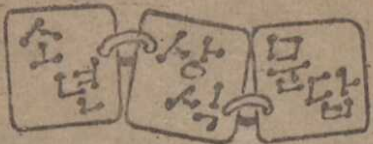
“난 아무 것투 먹구 싶지 않  
어. 어서 넌 짐으루 가려무  
나.”

창규는 이 애들이 잠을 할까  
보아 무서운지, 경황 없는 중에  
도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나 영길이는 창규가 이  
아이들의 친절에 넘어가서, 저  
를 귀찮게 생각하는가 하고  
속으로 불끈 하였다. 모두 아니  
끄웠다. 그래도 창규의 발자취  
가 점점더 부실해지며 곧 쓸어  
걸 듯 쓸어걸 듯한 것을 보자,

“애, 걸지 못하잖거든 입자!”  
하고 창규의 앞으로 쭈 나가터  
니, 웅크리고 앉으며, 손에 든  
책가방을 옆에 섰는 아이가 누  
구인지도 모르고, 말으라고 내  
면다. 봉수는 그 책가방이 정글  
정글한 종충이나 갈아서 손을  
대기가 싫었으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무를 업어 나르겠다고,  
급한 경우에 선뜻 나서는  
것을 보니 가발을 못 받겠다고  
할 수도 없었다. 봉수는 입맛이  
쓰면서도 세상에 누구 보다도  
미운 영길이의 책가방을 들어다  
주게 되었다.

“그만 뒤, 난 길을 데야.”



(문) 볼고기에는 귀가 없는데 어  
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답) 몸통아래 양쪽에 감각이 예  
민한 일종의 실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귀를 대신하는 것입니  
다. 손뼉을 친다거나 발소리를  
대면, 물에 물결이 일어나서,  
아무리 조그만 소리라도 물에  
전해져서, 이 실관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문)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답) 손은 들이니까 왼손을 쓰기  
나, 오른손을 쓰거나 마찬가지로  
것인데, 배는 오른손을 많이 씁  
니다.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여러가지  
기관이 심장을 왼쪽에 두기에 알  
맞도록 놓여 있습니다. 일례면,  
간은 오른쪽에 있고, 지라는 왼

정신만은 가을물처럼 맑아진 창규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싫은 생각에, 부끄러 주는 것도 뿌리치려 하였으나, 영길이는 덩석 엮으며 그 기세에 주룩 주룩 문 밖으로 내달았다. 역시 “가다”라 다르다고들 속으로들 웃었다.

“에이 바보! 밥 한끼쯤 굶었다구 쓰러진단 말이나!”

영길이는 차차 숨이 가빠지면 서도 등 뒤에 태고 입찬 소리를 하였다. 그러나 엮힌 아이는 참아 대답이 아니 나왔다.

“너두 한 이틀 굶어 보려무나!” 뒤에 따른 장 영준이가 대신 대답을 하였다.

“응? 이틀씩?... 뭇 땀에?” 밥을 뭐 못먹는지, 아직도 어정정한 영길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없구, 뭇지 못하면 못먹지. 쌀 떨어지면 굶었지 털 수 있다던! 요새 쌀 한 말에 이천 백원야? 너 뭐나 아니?”

영길이는 영준이의 편견에 그 까짓 건 몰라도 좋다고 되레 욕

박질러 주고 싶었으나, 사실 아무 것도 모르기도 하지마는, 이틀이나 굶은 창규의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도 없어 잠자코 말았다.

이만큼 오니까 창규는 내리겠다고 발버둥질을 쳐서, 팔 다리에 맥이 빠진 영길이는 슬며시 놓아 버리고, 허리를 펴며 한숨 돌렸다.

“애 쟤다!”

“우리 어깨 용쿠나!”

준석이의 참다운 인사에 뒤달아, 영준이가 좀 놀려주는 수작을 하였다. 규상이는, 그래도 밥 굶는 가엾은 동무를 업어다까지 주는 것을 보니, 제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모른 척 하여 버렸다. 그러나 얼굴이 벌겍게 상기가 된 영길이는 큰 일이나 하고 난 뒤처럼 마음이 좋았으나, 거기에는 대꾸도 없이 쪽 돌쳐서다가, 봉수가 제 책가방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열 적은 생각이 들어서 나오는 웃음을 감추느라고, 얼른 얼굴을 창규에게로 돌리며, 팔 쪽지를 꺾다. 창규의 오른편 팔은 영준이가 꺾다.

### 3

창규의 집은 학교에서 그리



쪽에 있고 하여 가지런히 포개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것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왼쪽에 있는 심장을 보호하는 것은 왼쪽 손이 편리하고, 따라서 오른쪽 손은 최대의 능력

을 발휘하여 적에 대들어야 합니다. 방패를 잡는 것은 왼손이지만, 칼을 잡는 것은 오른손이 자연스럽습니다. 원칙으로서는, 오른손은 부지런히 일하고, 왼손은 보조하려는 데서 좌우 손의 말은 적분이 다른 것인가 봅니다.

그리고, 심장에는 많은 혈액이

담겨져 있어서 무게도 무거우므로, 손과 발은 오른쪽이 발달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부무엇이고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떨지는 않았다. 전봇길 못미처서 네거리를 쫓으며 내려가다가 조금 비탈진배를 올라서며, 골목모퉁이 일각대문 집까지 오니까, 영준이가 앞장을 서 들어가며,

“창규 누나!”

하고 소리를 쳤다. 창문이 꼭 닫힌 아랫방 속에서

“응……?”

하고 모기만한 소리가 깊숙히 들려 나왔으나, 내다 보지도 않는다.

“애 누나두 때가 고과 났는게 로구나!”

규상이는 또 한번 놀라며 얼굴이 긴장하여졌다. 규상이와 북수는 각기 들고온 창규와 영길이의 책가방을 뒷마루에 놓으며 망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자니 까, 창규가 마루끝에 털썩 주저

까만 땀덩이 적삼을 입은 열대여섯된 계집애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간신히 일어나서 문설주를 붙들고 선다. 상큼히 여윈 해스룩한 얼굴은, 며칠이나 세수도 안하고 누웠었는지 앓는 사람 같은데, 오목하게 패어 들어간 눈만이 정기 없이 깜짝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된거유? 이러구 있으면 어떡하우?”

다른 아이들은 어이가 없어 떨거나 치어다만 보고, 역시 영준이가 가까이 다녔더니만큼 말을 먼저 꺼냈다.

“글쎄 추석미처에, 댁새만 다녀오마 하시구 시골 가지터니 벌써 일주일은 되는데 안오시는구나.”

굵고 들어 열대었느리고 날자가는 줄도 모르는지, 추석이 지

않아,

“누나!

...”

하고 창문을 열며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제 웬일이냐?”

창규누이는 이때까지 포대기 조각을 뒤어쓰고 누웠던지

난지도 벌써 열흘은 된다. 햇발이 전 쓸쓸한 마당을 쫓들어오는 저물녘의 가을 바람은 방문 밑에 섰는 처녀의 흠으러진 머리 앞을 푸푸를 날리며, 까맣게 더러운 적삼이 으스스 해 보였다.

모친은 살피라도 열고 고춧말이라도 생길까 하여, 추석미처에 나설 것인지, 어쨌든 영천(漣川)의가로 내려 갈제, 소두한 말도 못되는 쌀을 남겨 놓고 갔는데, 대엿새 먹고나니 떨어지더라 한다. 그 후 자날은 안집과 옆 집에서 꾸어 먹었으나, 그나마 다시는 말할데가 없으니 어제부터 이틀을 꼭 굶었다는 것이다.

“장 영준, 내게 돈있으니 우리 나가 뭐 사가지구 오자.”

영길이가 수군수군하는 소리를 규상이가 옆에서 듣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 쌀 자을 돈은 안되니?”

하고 물었다. 북수에게 손저검을 한후로 비로소 말을 부치는 것이었다. 서로 어색하였으나, 때가 때요, 일이 일이니만큼 영길이도 잠자코, 손가락 두개를 들어 보인다. 이백원 있다는 말이다.

“그럼 탄탄한 황부스러긴 사오지 말구, 그릇을 가지구 가서 “우동”을 시켜 오렴.”

“참, 그게 좋겠다!”

영길이는 다른 때 같으면, 규상이의 말이 열번 읊드라도 뒤를엿을지 모르나, 그러지 않아도 조 앞의 구멍가게로나 가 볼까 하던 판인미, 그렇게 동거이

주니, 선뜻 찬성을 하였다. 영준이는 벌써 장독대 옆에 놓인 쟁로 위에서 남비를 번쩍 들고 나섰다.

“애 어서 들어가 누렴.”

영걸이와 영준이가 뛰어나가는 뒷모양을, 말리지도 못하고 떨거리 바라보며 앉았는 창규더러, 규상이는 친절히 일렀다. 그때도 앉았는 창규나 섰는 창규누나나 맥없이 들만 바라보고 있다.

“넌 누구냐?”

안 집은 조용하니 아무도 열쎄를 아니 하고, 아까 들어올제 대문간에서 놀던 네살쯤 된 사내애와 애보는 조그만 계집아가 따라 들어와서, 구경거리나 난 듯이 이때까지 말뚱이 들한 가운데 서 있기에 규상이가 아른체를 하였다.

“친집 애야.”

계집애가 볼 것 다 보았다는 듯이 고개를 살짝 돌리며, 어린애를 끌고 나가니까, 창규가 대신 대답을 한다.

“안 집엔 아무도 없니?”

“없어. 극장에 다니는 배우란다. 낮에 나가면 오밤중에 들어 오기두 하구 전차가 떨어지면 아침에 들어와 원나절 자기두 하구...”

창규가 말대꾸 할 기운도 없는 듯이 가만히 앉았으니까, 누이가 대신 대거리를 한다. 같이 굶었을 텐데, 누이는 그래도 말이 또랑또랑하다.

규상이는 속으로 “응!” 하였다. 주인 집까지 그 모양으로 어른이 없고 어린애들만 맡겨

놓고 다니니, 창규 남매는 더구나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거산을 하고 밥을 굶는구나 하는 짐작이 나왔다.

“애, 이거 뜨겁다! 어서들 먹으라구.”

남비를 든 영준이가 앞장을 서 뛰어 들어오며 신바람이 나서, 맛이 좋으니 “아부라 양애”가 들었느니 하고 떠버린다. 점심을 먹은 창규는 그래도 험하였지만, 누이는 남비를 받아들이며 눈이 툇해지고 군침이 저절로 들었다.

“자, 우린 이제 가자. 창규야 어서 먹어라.”

창규누이가 부끄러워 그런지, 남비만 받아 들여놓고 먹으려하지 않는 눈치에 규상이는 일른 봉수를 끌었다.

“내일 학교 오너라. 점심은 내해가지구 갈께.”

영걸이도 이런 인사를 하고 따라 나서려니까,

“잘들 가거라. 안됐다...”

하고 뒤에서 창규 누이의 힘없는 목소리가 났다.

아이들은 모두 좋은 일을 했다는 마음에 기분이 유쾌해서 얼굴이 환하였다.

“애들아! 어떡하면 좋으냐? 저 어머니가 울때까진 쌀을 팔게 해야지.”

창규집에서 나와서 이만큼 오다가 규상이가 발론을 하였다.

“그래! 우리 내일 돈을 몇백원씩 가져오자.”

앞서 가던 영걸이가 응하며 들쳐 선다. 아이들은 우중우중 섰다.

“그러자! 백원이구 이백원이구 되는대루 갖다가 주자. 김규상이 네가 말야 모으렴.”

이때 첫 영걸이의 가방을 들어나다가 주게 된 것이 짐사에 충지않아서 몽충히 입을 담을고만 있던 봉수가 비로소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래야 쌀 한 말 값이나 되겠니?”

쌀 한 말에 이천 백원씩하는 것을 알거나 아느냐고, 영걸이를 물아대던 영준이의 말이다.

“참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먼저 아는 애 집에 들러서 일러두자. 내일 백원씩만이라도 가져오라구...”

영걸이의 의견이다. 규상이는 이렇게도 열심인 영걸이의 얼굴을 치어다 보며, 글 접으로 찹외 사먹으려 가자고 빈정대던 영걸이는 뻔 영걸이던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완삭이는 그동안 어떡하구 있누? 하는 생각도 불현 듯이 났다.

네 아이는 영걸이의 말대로 오늘저녁으로 동무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거두자고 약속하고 헤어졌다.

“이 영걸! 애 췌다. 잘 가거라.”

규상이는 아이들과 인사 끝에 영걸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췌 저것 다 잊어버리고 그저 마음이 유쾌하였다.

“응, 잘 가거라.”

영걸이도 좀 머쓱게 웃으며 소리를 쳤다. 규상이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한층 더 친하게 들려서 생긱 웃고 둘러다 보자니, 봉수는 그래도 이만큼 영걸이와

(11페이지에 계속)

새학기 6월치부터  
내용이 훌륭해지는

# 초학생

## 사진 화보 페이지

지금까지 우리 초학생은 글을 주로하여 편집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사진, 영화, 텔레비콘 같은 사진과학기술이 발달되어서 눈으로 보는 세계가 무척 우리와 가까워졌습니다. 이에 우리 초학생은 앞으로 표지를 사진으로 바꾼 것을 비롯하여 특별히 사진 화보 페이지를 새로 설치하여, 다음에 적힌 것과 같이 여러가지 새로운 장면을 보여드리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수 많은 카메라맨 (사진사) 이 동원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진화보에 들어갈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다음을 보십시오.

1. 뉴스.....초학생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사건의 뉴우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신문이나 잡지에 난 것을 옮기지 않고, 우리 초학생 사진만이 박은 것을 쓰게 됨은 물론입니다.

2. 사진 탐방.....각 국민학교에서 특별히 소개할 것, 또는 사람, 가정, 공장, 실내, 옥외 할 것없이 유익하고 흥미있는 것을 탐방하여 소개합니다.

3. 사진 소설.....재미있는 이야기를 사진으로 박아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4. 사진 만화.....사진과 만화를 엮어서 재미있는 웃음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밖에 사진현상, 사진놀이, 사진여행, 무이름 사진으로 될 수 있는 거면 잘 궁리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체는 특별히 음색트트 하여 선명하게 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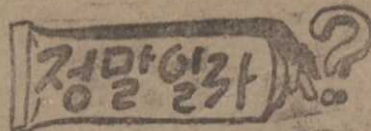
## ☆ 재미도 말한대요

재미가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 분은 곧이듣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처럼 입으로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수염을 맞대거나 수염을 내뿜어서 제 의사를 자원이 전하는 것이니까,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신호라고 하는 것이 옳겠지요.

어떤 사람이 이 재미의 신호에 대하여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아래와

같은 경우에 수염으로 신호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1. 먹이가 있었다. 훌륭한 먹이다.
2. 곧 적의 소굴을 공격하자.



3. 노예를 잡으러 간다. 곧 출발.
4. 달디단 꿀을 봤다.
5. 오른쪽으로 가라. 또는, 왼쪽으로 가라.

6. 앓! 큰일 났다. 조심해라
7. 너무 서두르치 말고 안정해라.

대강 이상과 같은 경우인데, 그 대가리에 달린 수염 두 개를 놀리는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신호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몇 천, 몇 만 마리가 되는 개들이 질서정연하게 단체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수염신호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도 한번 마당의 개미를 끈기 있게 관찰해 봅시다.



새로 연재되는 장편소설

소년역사소설

起 龍 將 軍  
기 룡 장 군

—소금 장수 수동아—

윤 백 남 지 음

김 기 창 그림

여러분이 애독하시던 정인택 선생의 “어름 없는 별들”은 이달치로 끝이 나고 다음 6월치부터는

윤 백남 선생의 역사 소설 “기룡장군”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윤 백남 선생은 지금 재석장의 소년을 쓰시는

염 상설 선생과 함께 우리나라 소설계의 월로이시며, 이분이 저술해내신 책이 여러 집권

어나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쓰신 것은 모두 어른들이 읽을 것 뿐이었고 여러분 소년소녀가 읽을 것을 쓰시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모든 정성을 들여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은 소년 삼국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양화계의 으뜸 김 기창 선생이



(윤 백남 선생)

말아 그리시니, 이야말로 비단에다 꽃을 덧붙인 격입니다.

지은이의 말씀.....이태조가 고려 왕조의 뒤를 이어, 이르는바 이찌조선의 건국 이래 북쪽 만주 지방의 야인(野人)들이 늘 우리나라의 변방을 침범하고, 남쪽에는 왜구(倭寇)가 가끔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했지마는, 이조 제14대의 임금 선조(宣祖) 대왕때의 임진왜란 처럼 큰 국난(國難)은 다시 없었습니다.

이 때의 우리나라의 군사는 오래 평화하고 무사한 가운데서 지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훈련이 게을러져서 그 악독한 왜군의 굳센 칼바람을 이겨낼 길이 없었습니다마는 대체로 보아서는 그렇다 할찌라도 부분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우수하고 용맹있는 재주를 보여준 장군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이 순신장군, 권 률장군이 다 그러한 분이시지만은 여기에 쓰고자 하는 정기룡(鄭起龍) 장군과 같은 이는 집안의 지체도 얕고 가난도 해서 소금 장사하던 아이의 처지로서 필경은 일대의 명장이 되어 왜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여타 어린 등 무에게 소금장수 수동아의 내력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 기창 선생)

짧은소식

○오스트레리아의 케이프 육을 탐험한 미국 원정대는 나무에 오르는 이상한 “강가두”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동물의 키는 4,5피트 가량 되지만, 몸무게는 겨우 15 파운드(1관 80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 동물은 대개는 나무 위에서 사는 데, 나무에 올라갈 적에는 마치 어린이들이 나무에 오르듯이, 앞발로는 붙잡고, 뒷발로는 때릴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 다.
- 미국에서는 최근에 모기에 대하여 진진 포고를 하었다고 합니다. 즉 작년 1년동안에 전세계 인구 3 억인을 괴롭히고, 3백만 명을 죽인 “마라리아”를 없애기 위하여, 모기 전멸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 뉴지랜드는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는데, 이 나라 인구의 8분의 1 이상이 60 세 이상의 노인들이라니 놀랄만한 일이지요.
- 마닐라를 피립핀의 수도라고 생각

각하는 이가 많은 듯한데, 현재 수도는 마닐라의 동북쪽 10 마일 지점에 있는, 전에 별장지대로 유명했던 케손시입니다. 수도를 마닐라에서 이곳으로 옮기게 될 제일 큰 이유는, 마닐라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나이스에 사는 한 덕씨 운전수는, 영화 영사막(그림이 비치는 포장)을 새로 발명하였는데, 이 영사막은 환한 낮에도 심진 영화를 볼 수 있으리만큼 사진이 똑똑히 비춰진다고 합니다.

동화

# 울지않은 까치



배우는 공장 뒤뜰에 황철나무가 있습니다.

황철나무 꼭대기에 까치 집이 있습니다. 까치 집에서 내려다 보면 공장 처녀들이 자는 들창이 보입니다.

처녀들은 모두 먼 시골에서 와 있습니다.

처녀들은 혼자 생각 할 일이 있어도 이 나무 밑에 옵니다.

혼자 근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 나무 밑에 와 근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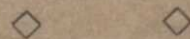
혼자 읽어야 할 편지가 있어도 이 나무 밑에 와 읽습니다.

정다운 동무 단 둘이 할 이야기도 있어도 이 나무 아래서 소근 소근— 친한동무끼리 논아 먹을 것이 있어도 이 나무 아래서 떡 절반 나 절반 논아 먹습니다.

그래서 황철나무 꼭대기에 까치 집 속 까치는 이 공장 처녀들의 일을 죄다 알고 있습니다.

공장 아무도 모르는 순에게 손에서 어떤 편지가 와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순이가 갑자기 공장을 그만 두고 치마폭으로

얼굴 가리고 울며 손에 간 꼭질도 까치는 다 압니다.



황철나무 아래 누가 사뿐 와서 앉아 편지를 펼쳐들고 읽고 있습니다.

까치도 얼른 눈치 채어 가만히 내려다 보니 낙동강 가 어느 촌에서 온 편지를 순난이 읽고 있습니다.

“누나야 잘 있니” 이렇게 시작된 편지는 누나한테 보내온 동생의 편지인가 봅니다.

편지를 보니 펴 동생은 가난한가 봅니다.

“봉취네 어머니는 봉취가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밥 많이 주겠다……” 하는 등 “산에가 나무하다 갈퀴에 손가락을 다쳐 이번 학기 시험에는 습자, 그림을 백점 못 맞았으니 신약국 손약을 보내 달라” 는 사연도 있고, 맨 끝에는 “돌담에 까치 우는 날은 편지 오는 날이니까 까치 우는 것만 기다린다” 는 이야기도 있고,

“형의 소식은 아직 잠잠한채 있다” 기도 하고, 또다 글씨 편지는 끝났습니다.

시골 동생에게서 온 편지 위에 눈물 방울 한 방울이 똑떨어져 젖어들었습니다.

나무 밑에서 읽던 누나의 눈물입니다. 까치도 가슴이 언짢았습니다.

순난의 어깨는 자주 들먹거리고 나무잎이 한 잎 고요히 순난이 몰래 치마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순난이 방 들창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더니 이른날 누나가 무친 낙동강 가 동생에게로 가는 편지는 공장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황철나무의 까치도, 들담에 까치 우는 날만 기다린다는 낙동강 가 동생의 편지 사연을 생각하고 공장 뒤뜰 푸른 하늘을 푸르 푸르 날아 낙동강 가 나지막한 돌담 속에 앉은 순난의 집을 찾아 떠났습니다.

박 넝쿨이 기어 올라간 초지붕 적은 집, 공장에서 날아온 까치는 들담에 날아가 앉아 한번 자지러지게

“작 작 작” 숨차게 울어 댔습니다.

적은 창문이 열렸습니다.

순난이 동생 얼굴이 불쑥 튀어나오더니 아이는 까치를 보고 좋아라 마당에 뛰어 나오며, “까치야 까치야 우리 형 소식이나

공장 누나 소식이나 누구 누구 소식이나.”

“작 작 작”

“말좀 해라 누구 소식이나.”

“작 작 작”

아이는 집을 향해 소리 쳤다.

“엄마 저것봐 까치 콩지 낱쪽  
인저 보니 누나 편지 오겠지.”

아이의 어머니도 방 문을 열고  
방긋이 웃으며 내다 보았습니다.

“까치야 고맙다. 저 그리고 우리  
형 소식은 언제쯤 있겠니.”

까치는 그냥 작작 울어대다가  
멀리 고개 아래를 오는 자전거  
탄 채신부를 보고 그제야 마음  
놓고 푸르르 날아 그 집에서 떠  
났습니다.

떠나오다 생각하니 그 아이  
가 형 소식을 무척 기다리던 일  
이 가슴에 걸려 일부러 벼랑 길  
쪽을 지나는데 초상 치르고 나  
풀 나풀 풀밭을 나오는 하얀  
상옷을 입은 흰 나비 하  
고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출판의 나  
그네라 하였습니다.

혹 이 출판의 나그네,  
흰 나비 보고 물으면 순  
난의 오빠 향방 알가 싶  
이 까치는 풀밭에 내리  
어,

“먼길 나비님 어디 갔다 오시  
나요. 오늘도 어느 꽃동네 하  
늘의 별을 사모하다 죽은 꽃  
무덤 초상 치르러 갔다 오십  
니까.”

공손히 물었습니다.

나비는 후유 한숨을 길게 내  
쉬며 풀잎에 쓰러지듯 앉으며,  
“참 까치님 당신은 이 집 저  
집 소식을 나르는 불이라, 사  
람 이름 잘 알겠군 어디 물어

봅시다.

순난이라 누굽죠.”

“아 순난이요, 잘 알지요.

그 집은 저 낙동강가 적은 집  
입니다. 그래서요?”

나비는 또 길게 한숨을 내 쉬  
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산을 나오는 팔망태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팔 망태 속 노랑  
꽃이 하도 이뻐서 나는 따라  
가 팔망태에 날아 앉았지요.

힘 없는 걸음으로 바위 옆을  
지나던 팔망태 맨 사람은 팔



망태를 맨채 꼭 앞으로 쓰러  
졌지요.

뭐냐구요, 건 물랴요……

그리고 풀잎 몇포기 뽑아 씹  
다가, 바위를 껴 안고 어머니  
집을 버리고 나온 내가 잘못  
했오.

용서하시우, 그리고 순난아,  
이렇게 가늘게 겨우 말하고는  
그 사람의 눈은 고요히 감기  
웠습니다.

나는 분명 들었지요, 팔망태  
위에서 순난아 하던 소리, 지  
금 순난이란 이름을 찾아 허  
덕대고 가는 걸입니다.”

“아아 고맙습니다. 바로 순난  
의 집에 내가 전해 드리지요.”

낙동강가 순난이네 집 돌담에  
저녁때 헐터거리고 찾아 온 까  
치는 또 작 작 울었습니다.

“아아 까치가 무네, 이번에는  
콩지가 서쪽인 것 보니 우리  
형 소식인가 보지.”

아이는 또 고무 광처럼 튀어  
나와 좋아했으나 그의 어머니  
는 어두운 얼굴로 집안으로 도  
로 들어 갔습니다.

밤도 깊어서 낙동강가 접  
에서는 공장 누나한테로 형  
이 죽었다는 슬픈 편지를  
관들거리는 석유탐 아래서  
엄마는 부르코 아이는 그대  
로 받아 씩니다.

낙동강물도 흐느끼듯 조  
용히 흐르는 밤. 그보다 앞서  
공장 뒤뜰 황칠나무에 돌아  
온 까치는 작 작 작 부산  
스에 울어댔습니다.

순난아가 튀어오며 파다  
보다

“아이 고마운 까치 며칠 안  
보이더니 기쁜 소식 들고 왔  
나.

오늘쯤 집에서 무슨 편지가  
오나 보지. 까치가 저렇게 울  
어대니.”

아니나 다름가 며칠만에 순난  
이 한테 기속 사감은 편지 한장  
주고 갔습니다.

순난이는 황칠 나무 아래에  
두 다리 꼬옥 펴고 앉아 서늘에

서 온 편지를 읽습니다.

까치도 기웃 기웃 내려다 봅니다.

누나야 슬퍼해라, 이런 첫 머리로 시작 된 편지 속에는 돌담에 와서 까치가 몹시 울더니 반가운 누나 편지 왔더라 이야기, 또 저녁때 까치가 몹시 울어 데더니 지나간 봄 밤에 없어진 형은 그 후 소식 몰라 궁금해 하였더니, 우연히 지나가던 나뭇군의 말을 들으니 아스랑 풀작 나무하다 형의 옷 차림과 꼭 같은 주검을 보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얼마 우름 내 우름 집은 우름속에 있다고 써어 있었읍니다.

순산이는 가늘게 느끼며 다 읽었습니다.

또 한참 치마 폭에 얼굴 가리고 울다 곧 회답을 써서 띄워 보냈읍니다.

해질 무렵 우리 공장 뒤뜰 황철나무 까치가 이상스레 울더니 네 슬픈 편지 왔더라는 사연이 있었읍니다.

우포 붙인 편지는 공장 문을 빠져 나갔으나, 이제 누나 편지 기다려 돌담에 까치 우나 살필 낙동강가 집 속 동생을 생각해 보았으나 까치는 지무룩해 앉아 날아 나가지 않았읍니다.

자기가 우니까 동생도 누나도 모두 슬픈 소식 받은 것 같이 되었읍니다.

이상도 하게 그 다음부터 공장 뒤뜰 황철나무에 집 짓고 있는 까치는 울음을 물렸읍니다.

영문 모르는 공장 처녀들은 황철나무 아래 와서

“오늘쯤 무슨 좋은 소식 없을까.”

까치가 울기를 기다렸읍니다.

그래도 영 황철나무 까치는 울지 않았읍니다.

공장 처녀들은 마지막에는 무슨 편지 없는 것을 황철나무 까치 탓으로 여기고

“에잇 병어리 까치!”

“못난이 까치 울줄 모르는 까치.”

까치 집에다 들을 히...히... 던지었읍니다.

그러나 울지 않는 까치는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하고 있었읍니다.

...이 공장 처녀에게 모두 기쁜 소식이 올때까지 울지 않으리라 하고.....

—끝—

# 옛시조 1

우는 것이 비국이가 푸른 것이  
버들 숲가  
어촌 두세 집이 모연에 잠겨세  
타  
아희야 새 고기 오른다 흰 그물  
내어라 (윤 선도)

새김—들떠 오는 새 노래는 배  
꾸기 소리냐, 푸르게 보이는  
것은 버드나무 숲이나. 어촌  
두서너 집 조그만 마을이 저녁  
연기 속에 잠겨 있구나. 새 고  
기가 오를 때가 되어잔다. 어  
서 흰 그물을 꺼내라. 고기잡  
이 가겠다.





(지 도)  
 문교부 교수 요목 제정 위원  
 문교부 교과서 편찬 위원  
 윤 태 영

문 제 (9) ...시간 20분...

◎문제의 목표

이 달은 학년이 끝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 종합하여 문제를 풀어서 우리의 실력을 알아 보도록 합시다.

(가) 다음 문제에 이치에 맞는 것에 ○표를 써주세요.

- (1) 만주정치는 무엇인가?  
 ①임금이나 몇 사람이 온 국민을 지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는 정치.  
 ②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법인 헌법을 세운 정치.  
 ③군인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정치.
- (2) 삼권이란 무엇 무엇인가?  
 ①입법(立法), 행정(行政), 사법(司法)이다.  
 ②대통령, 경찰, 장관이다.  
 ③정부, 시청, 경관이다.
- (3) 국민의 권리는,  
 ①참정권, 행위 청구권, 자유권이다.  
 ②반대하는 권리, 일 안하는 권리, 노는 권리이다.  
 ③개인이 마음대로 행동할 권리이다.
- (4) 일본은 미국을  
 ①1274년 12월 8일에 공격하였다.  
 ②1278년 8월 15일에 쳤다. ○  
 ③1270년 7월에 쳤다. X
- (5) 해아의 밀사는,  
 ①장 안환, 절 명운이다. X  
 ②나 석주, 김 상옥, 윤 봉걸이다. ○

- ③이 준, 이 상설, 이 위등이다. X  
 (6) 병자 호란은,  
 ①명 나라가 쳐들어 온 것이다. X  
 ②청 나라가 쳐들어 온 것이다. X  
 ③원 나라가 쳐들어 온 것이다. ○
- (7) 을사 보호 조약은  
 ①한국을 잘 도와주자는 것이다. ○  
 ②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X  
 ③우리 나라를 아주 강탈한 것이다. ○
- (8) 이순신 장군의 돌아가신 곳은  
 ④울돌목이다. X  
 ③환산도이다. X  
 ③오랑이다. ○
- (9) 개천절은 10월  
 ①10월 9일이다. ○  
 ②10월 3일이다. X
- (10) 당쟁의 폐단은  
 ①백성을 잘 다스리었다.  
 ②백성을 잘 다스리지 않고 정권을 이용하였다.
- (11) 벌과 나비는 꽃에서,  
 ③꽃만 얻어 온다. X  
 ②재미있게 논다. ○  
 ③꿀과 꽃가루를 얻게 되고, 꽃은 꽃가루를 전하여 주는 도움을 한다. ○
- (12) 소나무 같은 꽃은,  
 ①벌이 다 나비가 꽃가루를 전하여 준다. X  
 ②바람이 꽃가루를 전하여 준다.  
 ③다른 벌레가 꽃가루를 전하여 준다.
- (13) 수도물의 물 근원은,  
 ①아무 곳에서나 구한다. ○

②바다에서 구한다.

③깨끗한 물을 많이 얻는 데서 구한다. ○

(14) 학질은,

①낮잠을 자면 옮긴다. ○

②음식에서 옮는다. ✕

③모기에서 옮긴다. ○

(15) 소금에 저린 음식이 상하지 않는 것은,

①소금물로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불어나지 않는다. ○

②짜서 상하지 않는다. ○

③짜서 파리가 오지 않는 까닭이다. ✕

(16) 피뢰침은,

①벼락을 맞기 위하여 세웠다.

②벼락을 쫓기 위하여 만들었다.

③벼락을 막기 위하여 세웠다.

(17) 전동기는,

①전기의 힘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키는 기계다. ✕

②전기의 힘을 내는 기계다. ✕

③전기를 일으키는 기계다. ○

(18) 비행기가 뜨는 것은,

①발동기의 힘으로 프로펠러를 돌려서 바람을 뒤로 보내어 그 되돌림으로 앞으로 나가는 까닭이다. ○

②날개를 움직이는 까닭이다. ✕

(19) 옛날부터 문명이 발달한 것은,

①물이 없는 곳에도 되었다. ○

②물이 있는 강가의 근처였다. ✕

③산 위였다. ○

(20) 저수지는,

①논에 물을 대려고 만든 것이다. ○

②경치를 좋게 하느라고 만든 것이다. ✕

③배를 띄우게 하며 물 고기를 기르려는 것이다. ✕

(21) 사람이

①서로 맞나다.

②서로 만나다. ○

(22) 편지를 시골로,

①부친다. ✕

②불친다. ○

(23) 우리들은 세종 임금

①울얼어 찬양한다. ○

②우렐어 찬양한다.

(24) 중학교 갈 준비를,

①빠짐 없이 갖추고 있다. ✕

②빠짐 없이 갖추고 있다. ○

(25) 시월이 되면

①아침 저녁 공기가 완전히 선선해 진다. ✕

②아침 저녁 공기가 완전히 선선해 진다. ✕

(26) 이 울퉁 선생은

①불도를 닦았던 것이다. ✕

②불도를 썼었던 것이다. ○

(27) 울퉁 선생은

✕ ①앞으로 만리 전정을 내다 보고 또 다시 속세로 돌아왔다.

○ ②불도가 마음에 맞지 않아 돌아왔다.

(28) 아세아는 굉장히,

○ ①땅이 넓고 사람이 많이 산다.

✕ ②땅이 넓고 사람이 많다.

(29) 에디손의 이름은,

○ ①세상에 넓게 퍼져 있다.

✕ ②세상에 넓게 퍼져 있다.

(30) 석굴암의,

○ ①모양은 다 각기 달라 혹은 예쁘고 혹은 엉성곳고 늙름하다.

○ ②모양은 다 각기 달라 혹은 이쁘고 혹은 엉성곳고 늙름하다.

(31) 우리 나라 사람들은,

○ ①단군의 후생이다.

○ ②이제부터 세상에 나올 사람들의 후생이다.

(32) 떠엄떠엄 있는 것은,

○ ①초가 데여섯 집이다.

✕ ②한강이다.

(33) 소년 메펠은,

○ ①자기 나라의 위대한 경우를 구하였다.

✕ ②자기 나라의 안전한 경우를 구하였다.

(34) 바다를 바라다 보니,

○ ①우리의 마음도 한없이 넓어 지고 화평스럽다.

✕ ②우리의 마음도 한없이 넓어 지고 공평스럽다.

(35) 미국 백화점 왕이란 이름을 듣는 잔와

○ 나 데이커는 이런 말을 하였다.

①첫째 상인은 정직하고 충실하여야 하는 데 만일 진용을 얻지 못하면 얼마동안은 적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실패와 파멸을 스스로 보게 된다.

②첫째 상인은 이익을 많이 얻어야 하므로 이익만 볼 생각을 하는 것이 성공이다.

(36) 100g의 물을 1도 높이는 데는,

①100칼로리의 열이 필요하다.

②1칼로리의 열이 필요하다.

(37) 모래의 부피는

①  $\frac{\text{밀집이} \times \text{높이}}{2}$

②  $\frac{\text{높이} \times \text{열면}}{2}$

(38) 공의 부피는

①  $(\text{반지름})^2 \times \pi \times \frac{4}{2}$

②  $(\text{반지름})^2 \times \pi \times \frac{4}{3}$

(39) 기울기는,

①  $\frac{\text{높이}}{\text{수평거리}}$

②  $\frac{\text{수평거리}}{\text{높이}}$

(40) 다음의 어림수의 답은,

① 
$$\begin{array}{r} 3.5 \\ 3.45 \\ 1290 \overline{)4468} \\ \underline{387} \\ 590 \\ \underline{516} \\ 740 \\ \underline{645} \\ 95 \end{array}$$

② 
$$\begin{array}{r} 3.4573 \\ 1290 \overline{)4468} \\ \underline{387} \\ 590 \\ \underline{516} \\ 740 \\ \underline{645} \\ 950 \\ \underline{903} \\ 470 \\ \underline{387} \\ 83 \end{array}$$

문제 (8) 의해답 4월 치

- [1] (3) (4) (1) (2)
- [2] (4) (3) (2) (1)
- [3] (1) (4) (3) (2)
- [4] (2) (1) (4) (3)
- [5] (3) (2) (1) (4)
- [6] (4) (3) (2) (1)
- [7] (1) (4) (3) (2)
- [8] (2) (4) (1) (3)
- [9] (3) (2) (4) (1)
- [10] (1) (3) (2) (4)
- [11] (1) (4) (3) (2)
- [12] (2) (1) (4) (3)
- [13] (3) (2) (1) (4)
- [14] (1) (2) (3) (4)
- [15] (4) (3) (2) (1)
- [16] (2) (1) (3)
- [17] (1) (3) (4) (2)
- [18] (2) (1) (3) (4)
- [19] (4) (2) (1) (3)
- [20] (2) (1) (4) (3)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타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길러드리기 위하여 작년 9월부터 연재해온 윤대영선생님의 "재공부"는 이번으로써 끝났습니다. 재학기 부터는 더 재미있는 것을 써주시기로 약속 하셨으니 많이 기다려 주십시오. (편집부)

가정 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책

# 어린이 한글 책

윤석중 꾸밈·홍우백 최수섭 그림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이 말을 배우고 글을 깨치는데 참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책!

5도 색색이 그림·국판 36면 값 200원

아협 발행·문장각 발매



★ 장편 소설 ★

# 이름 없는 별들 (9)

정 인택 (그림·정 현웅)

## 제 8 장 반짝거리는 별들

(1)

그 날 저녁 때 어둑어둑 해가 저물어 갈 무렵이었다.

다리 목에 있는 지서(支署)안에서는 지서 주임과 마주 앉은 창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창수의 표정과는 반대로 지서 주임은 평상시와 조금도 다를 없는 태도와 말씨로 조용히 듣고만 있더니 이윽고 입가에 잠깐 웃음을 띠며 이야기를 재촉했다.

창수는 그러나 얼른 말을 잊지 못하였다.

창수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어떻게 자기 마음 속을 표현해야 좋을지 몰라, 생각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또 눈시울이 뜨거

워졌다. 창수는 이를 악물어 참으려 했다.

“어서 허구 싫은 말, 다 해 봐!”

지서 주임은 또 한 번 이렇게 재촉하고 나서, 천천히 담배를 꺼내 들고 불을 붙였다.

자기 마음 속의 비밀을 아버지에게만 고백하는 것으로는, 창수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나는 커다란 죄를 진 범인이나까 경찰에 자수해야 한다!……이렇게 생각한 창수는 아버지보다 한 걸음 앞서 물레 가게를 빠져 나와 동네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즉시로 창수는 집에도 안 들르고 골장 지서로 달려온 것이었다.

창수는 지서 주임 앞에서 아버지한테 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되풀이 하였다. 자기 때문에 그

화약이 폭발하였고, 학교가 났고 그 북세동에 다리를 다친 희봉이는 그에 팔자에 없는 병신이 되고 말았고, 그 범인인 자기는 잡혀갈 것이 무서워 지금까지 그것을 숨겨 왔으나, 이 이상 더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를 씻기 위하여 희봉이 힘이 되겠다는 것……두 번째라, 아버지한테 말씀 드릴 때보다는 훨씬 차근차근히, 조리있게 창수는 이런 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는 그것 뿐이냐?”

지서 주임이 담배 연기를 후우 천장을 향하여 내뿜으며 재촉 물었다.

창수는 겨우 고개를 쳐들었다.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해요, 희봉이를 위해서두……희봉이 보기 미안해서두 벌을 받아야 해요.”



저를.....저를.....”

창수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그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2)

“네 이름이 창수였지?”

“네.”

창수의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지서 주임은 퉁퉁히 달래가면서 물었다.

“응 그럼 창수야, 내가 묻는 데루 뭐든지 바른데루 대답해 봐 알았지?”

“네.”

지서 주임은 또 새 담배에 불을 붙여 물었다.

“그 날, 구경 가서 보니까,네 주머니에 성냥이 들어 있었는지?”

“네 그 성냥이 왜 제 주머니에 들어 있었는지 그건 정말 저는 몰라요.”

“그래, 네 말은 다 믿을테니까 걱정 말고 대답만해.....그 때 아직 영화는 시작되지 않았구해서 너는 혼자 심심하니까 그 성냥으루 불장난을 했겠지?”

“네.”

“그게 어디였지? 그 불장난한 데가?”

“바루 학교 뒷산, 그 시커먼 바위 밑입니다.”

“음, 그래. 그러는 사이에 영화가 시작되니까 너는 급한 마음에 그냥 성냥을 내동댕이치구 학교 운동장 쪽으루 뛰어 왔단 말이지?”

“네.”

“그래서 그 성냥불 때문에 화약들이 터지구 학교에 불이 나구.....”

“네. 저 때문입니다. 제 불장난 때문입니다. 모두 제 죄입니다.”

또 흥분하려는 창수를 지서 주임은 일른 말리며,

“아니다, 그러지 말고 가만히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라!”

하더니, 이번엔 소리까지 내어 꺾꺾 웃으며 창수의 어깨를 한 손으로 지긋이 눌렀다.

“창수야, 넌 참 착한 아이다!”

“네?”

“모두 너 같이 착한 아이들만 이라면 우리 나라는 걱정 없겠다!”

창수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눈만 커다랗게 뜨고 지서 주임의 얼굴을 뚫어져라고 바라보았다.

“애, 창수야 아무 걱정마라. 너는 아무 잘못한 것두 없구 죄인 두 아니다!”

“네? 어째서요?”

“넌가 정말 그런 범인이었다면 경찰에서 입대 모를 리가 있겠니? 벌써 무슨 끝장이 나고 말았지. 너는 마침 그 때 날 몰래 불장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런 난리가 난 줄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이름없는별들★

지금까지 이야기 줄거리

서울 문밖, 어느 국민학교에서 영화를 놀리게 되었는데,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불안한 불길의 하늘을 질르고 그만, 학교는 타버리고 말았다.

그중에 구경 갔던 희봉이는, 어른 틈에 밀리어, 채이고 밟히다가, 그만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누가 불을 놓았는지 모르나 태진이 이야기로 일본놈이 파묻고 간 폭탄이 터져서 불이 난 것이라고 한다. 그 때 구경 갔던 아이들이 수상하다는 말을 하였을 때 창수의 태도가 좀 이상했다.

그 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교생이 학교에 모여 선생님을 도와 일을 시작했다. 다리를 다친 희봉이는 아직 상처가 가지지도 않았는데 일을 하려갔다. 그날 밤부터 희봉이는 다시 열이오르고 다리가 뒤틀려 드디어 문안 병원에서 다리를 잘라야하게 되었다.

갑주, 종호, 우순이, 태진이, 창수등 여러 동무들은 그리 녀녀하지 않은 희봉이 집 형편을 알기 때문에 서르 돈을 모아가기로 했다. 약속한 곳에 모두들 모여왔는데, 창수는 앓른다고 오지 못했다. 끼리끼리 모은 돈은 5천원이 됐다.

개학날이 박두하여 교장선생을 중심으로 학부형간에, 학교 재건문제가 토의되어, 모두들 열성껏 비용을 내기로 했다. 갑주 네는 이사온지 얼마 안되지만, 자기 아들, 이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갑주 아버지는 학교 건축비의 3분의1을 혼자 부담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편 창수는 나날이 더욱 우울해져 하로는 희봉이 병원에 갔다. 마침 간호부가 약을 갈아부칠 때이라, 무릎위서부터 잘라버린 그 참혹한 희봉이 다리를 보고 창수는 그냥 뒤쳐나와 정신 없이 막 달렸다. 창수는 무의식중에 아버지에게 찾아가 들어가 "학교는 저 때문에 불이 났다"고 아버지께 고백했던 것이다.

땅에 떨어진 듯한 느낌이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창수는 자기가 꼭 범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지기도 싫었던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것두 아니다. 왜냐하면..... 화약 묻혀 있던 데가 그 바위 밑이 아니었거든."

"네?"

"그 바위 밑이 아니구, 거기서 훨씬 떨어진 정자나무 있지 않았니? 바위 거기 었단 말야. 그러구 경찰에서는 벌써 조사가 다 끝나서 아이들 장난 때문이 아니란 것을 다 알구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일 때까지 폐애니 쓸 데 없는 걱정을 해 왔단 말이다."

창수는 어이가 없었다. 기가 막혀다. 그렇다면.....정말 그렇다면 창수는 전신의 맥이 타풀리는 듯 하였다. 한 편 반갑고 한 편 놀라웠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에 통하는 낙심은 아니었다. 다음 순간, 무엇이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 속에 용솟음쳐 올랐다.

.....내게는 아무 죄두 없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창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가 없다. 그것은 네 불장난 때문이 아니었어. 어른들의 달뻗볼 때문였어. 생각해 봐라, 그까진 성냥불이 꺼지지

그렇게 오래 탈 줄 아나?"

"종이에 붙어서.....그랴는 수 두 있지 않아요?"

창수는 하늘 높이 솟았다 쿵



주임 앞으로 달려들었다.

“아저씨, 저...정말입니까!”

“그럼 내가 네게 거짓말을 하겠니. 그렇지만 네게 두 한가지 잘못은 있다!”

“.....?”

“그렇게 생각했으면 왜 진작 와서 그 얘기를 하지 못했느냐 말이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연히 맘 속으루 피로웠지. 그런 일이 있을 적엔 정직하게 나한테나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법야. 그거 하나는 네 잘못이었다!”

창수는 가만히 고개를 숙고렸다. 시뻘겋게 충혈된 눈을 저서 주임 앞에 보이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 (3)

창수 아버지는 창수의 고백을 듣자, 눈 앞이 아찔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창수를 꾸짖을 생각도 안난다. 오직 창수 신세가 가여웠다. 어린 마음에, 참아 그것을 빌설은 못하고 지금까지 숨겨오자니 오죽이나 피로웠을까. 그것을 생각하니 창수 아버지는 자기 가슴이 찢르르 재려울 지경이었다.

창수 아버지는 지금까지 미심

직던 창수의 행동을 하나 하나 생각해 보았다.

.....올아, 그래서 그랬군그태!

학교 불 탄 자리 정리하느라고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열성적일 때도 창수만은 한 번도 거기 참례하지 않았었다.

또, 회봉이가 다리를 다친 후로 창수는 다치면 아이가 된듯이 침울해졌고, 나가 놀지도 안했고, 오직 회봉이 간호에만 있는 정성을 다 받쳤었다.

또그 일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명랑하고 쾌활하던 아이가 퉁 말도 없애지고, 항상 우울한 표정이었고 나날이 여위어 갔다

또.....

어린 마음 속에 커다란 비밀을 숨겨 두자니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노릇이었을 것이다.

그러나,그것은 다 지나간 일. 그 비밀을 입 밖에 내고 만 이상, 이제는 앞으로 닥쳐 올 문제가 해결하기 더 어렵다.

아직 나이 어리고 또 순전한 과실이니까 감회원까지는 안가게 될것이나, 경찰에 불려가서 여러 가지로 문호는 받아야할 것이다. 그것은 그렇다하고, 동네에서 그런 들 알면, 오죽이나 창수를 원망할 것인가. 더구나 회봉이네

집에서는 창수 때문에 딸 하나 병신을 만들고 말았으니 원망할 정도가 아니라, 창수를 잡아 먹고도 싫을 것이다.

.....창수는 나이 어린 내의 아들,그렇게 되면 결국 그 책임은 전부 내가 져야 한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창수 아버지는 스스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 모두 저 때문예요. 저를 위해서라도, 학교 새루 짓는데 기부두 허시구 회봉이 입원 비용두 물어 주시구 허세요. 그래야 저는.....그래야 저는.....”

이렇게 악 쓰듯 말하며 느껴우는 창수를 창수 아버지는 말없이 내려다 보실 뿐이었다.

“그래, 알았다. 너무 의외의 일이라 당혹 정신을 채릴 수가 없구나. 알았으니 어서 전정허구, 좀 앉아서 쉼어라. 같이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자!”

억지로 이렇게 창수를 달래인 창수 아버지는 남아지 일을 정리하시기에 잠시 동안 바빴다. 창수가 부시시 자리에서 일어나 밤으로 나갈 때도, 창수 아버지는 창수가 변소에 가는 줄만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나 창수



는 그 길로 동네로 돌아와 지서를 찾아 갔던 것이다.

그러나 창수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 창수 아버지는 또 한 번 정신이 아찔하였다.

.....이 늙이 죽으려 가지나 않았나?

피땀 머리에 떠오른 것이 그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니, 창수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싶었다.

.....전작 내가 세월스런 대담을 안했더니.....원래 성질이 풍한 녀석이라서.....

그래도 설마.....하는 생각이 들었다.

창수 아버지는 부랴부랴 자동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구두쇠 창수 아버지로서는 희한한 일이었다.

.....학교 짓는 비용을 내가 다라도 맡으마. 희봉이 병원 비용 아니라 한 평생을 먹여 살리기라도 하마. 창수야 그저 죽지만 말고 살아있기만 해라.

자동차 속에서 창수 아버지는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허둥허둥 집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그러나 창수는 집에도 있지 않았다.

아침에 나간채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늙이 필시.....

어느 틈엔지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간다. 주위에 어둠이 서리니까 창수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더욱 초조해 갔다.

창수 아버지는 참다 못해 털떡 일어나 지서를 향하여 뛰었다. 경찰에다 수색원을 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지서 문 앞에 다달은 창수 아버지는

“창수야!”

외다뼉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 펄쩍 주저앉고 말았다. 창수가 지서 주입과 무엇인지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 주 (4)

새파란 하늘엔 흰 구름이 몽게몽게 멋있게 떠있다.

창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아무래도 북풍과는 달라, 제법 선선하다.

새로 후원회장이 된 갈주네 집 2 층에서 갈주 아버지와 교장선생님이 학교 신축문제에 대하여 열심히 의논하고 계셨다.

이마를 맞대고 한참 무엇인지 수근수근하시더니, 갈주 아버지는 앞에 놓은 서류를 척척 접어

한 옆에 놓으시며,

“그럼, 얘기는 다 끝났읍니다. 하여간 경비 걱정은 조금 두 다시구, 일단 척척 진행시키십시오. 뒷일은 내가 도맡아 할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참 이번 일에 박 선생 공로가 여간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가 잘 되느라구 박 선생 같은 분이 이 동네로 나오셔서.....”

“히히, 또 쓸데 없는 소리 자주 하시는군. 교장선생님 열성에 우리들이 움적일 거지. 사실 우리야 뭐.....”

그 때, 맥주 병을 들고 올라오신 갈주 어머니가

“저어, 손님 오셨어요.”

하고 가만히 갈주 아버지한테 전하셨다.

“누가 오셨어요?”

“종호 아버지허구, 윤봉이 아버지허구.....”

“으응, 그럼 편찮어, 마칠 잘 됐군. 이리루 올려오시래우.”

“네.”

갈주 어머니가 내려가시자 아랫층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손님 기시지 않어요?”

“네 교장선생님예요?”

“네 끝 올려오시라구.....”



“우리가 받은 걸군 그래……”

쿵쿵쿵 층계를 올라온 종호 아버지와 윤봉이 아버지는 방에 들어서시자 마자,

“이거, 우리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모양이구려, 하하하.”

교장선생님은 일부러 상을 잘 뜯어 찢어주시며,

“월 참 염치 없는 양반들이로군. 박 선생허구 들어서만 오붓하게 먹겠드니 불청객이 뛰어들어 흥을 깨치니, 쫓쫓.” 혀까지 꼴꼴 차시는 것이다.

윤봉이 아버지가 딱 그 앞에 가 마주 앉으시며 투명스럽게, “아따 고맙 두시구려. 어서 두 분이서만 오붓 하게 자셔우. 우리 몫은 이 려 어주머니가 따루 갖다 주실테디다.”

종호 아버지가 그것을 가로막 으시며,

“거 왜 이 양반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워? 자아, 우리 화해 술이나 한 잔 하십시다.”

교장선생님 앞에 놓인 술잔을 종호 아버지가 빈쩍 겁어들어 마약 입에 갖다 대려다 그 순간 이었다.

소라도 없이 창 너머로 날라 들어온 고무 공이, 마침 종호 아버지 들고 깨진 술잔을 후려 갈았다.

“아고!”

술은 옆저러지고, 술잔은 산산조각에 나고, 깜짝 놀라 자리를 비키는 바람에 채털이가 발에 채이고……갑주 아버지가 재빨리 뛰쳐 일어나,

“웬 놈들이냐?”

백려 같이 고향을 지르며 창가로 뛰어가셨다. 다른 어른들도 뒤따라 그러로 몰려 오셨다.

멀리, 비탈길을 고무 공 모양으로 때굴때굴 굴러내려가는 아이들…… 뒷모양이 있으나 앞장선 것은 종호요, 그 다음이 갑주, 그리고 윤봉이, 맨 뒤에서 힐끔 뒤를 돌아 보며 달아나는 아이는 의외에도 창수였다.

“전련 놈들 봤나!”

기가 막힐 듯이 갑주 아버지가 탄식할 때,

“저어 손님 오셨어요.”

어느 틈에 올라오셨는지 등 뒤에서 갑주 어머니 목소리가 났다.

“이거 웬 손님야?”

하면서 명함을 받아 드실 갑주 아버지는 한참 고개를 지웃거리시더니,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혼잣말 같이 중얼거리시자, 여짜 너미로 명함을 거웃한 종호 아버지가,

“이게 웬 일야, 창수 아버지 로군 그래!”

악 쓰듯 말씀하셨다.

(5)

창수 아버지가 거루한 뒷산 기슭 새 리전에다 2층 벽돌 집으로 새 학교를 짓기 시작하였다.

위 아래 열두 교실. 어만하면 우선은 이 동네 학령아동을 거의 수용할 수 있다.

둘 다 듣는 소리 나무 꺾는 소리, 흙 파 나르는 목도군들의 처량한 노랫소리도 간간히 들려온다.

인제부터는 어른들이 일할 차례였다.

새 학교가 완결될 쉼 때까지는 아이들은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하루 한 번씩 마지 못해 쳐다 볼 뿐.

“애개개, 입매 기둥두 다 못 세웠어?”

이렇게 비웃고는,

“애, 우리 바섯 캐러 가련?”

일요일 같은 때면 흔히 한 아이가 이런 짓을 제안한다.

사실 그래도 좋았다.

훌륭한 학교가 세워졌다고, 칭찬 들을 사람도 어른들, 포창 밭을 사람도 어른들, 그리고



큰 일을 한 것 같이 뽐낼 사람도 어른들이다.

아이들은 여전히 장난하면 매 맞고, 공부 못하면 꾸지람 듣는 천덕꾸니들이다.

“난 메뚜기 잡으러 갈걸!”

태진이는 의례 처음에 이렇게 빛나가 본다.

“밤대루 허러므나, 너 혼자서 메뚜기 잡든 말든 누가 아 니?”

종호가 이렇게 쓰이불었다.

“혼자 못가나 뭐?”

“글쎄, 가!”

“갈태야, 걱정 말어!”

종호와 태진이가 싸우고 있는 한 옆에서 갑주는 망서린다.

버섯도 따러 가고 싶고, 메뚜기도 잡으러 가고 싶다. 문안에

서만 살던 갑주는 통 그런 것에 관하여 지식이 없다. 두 가지가 다 처음이라, 어느 쪽이 더 재미있을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한참 망서리었다.

“갑주야, 넌 버섯 따러 가지?”

지금까지 보고만 있던 창수가 핵 이리로 돌아서더니, 눈을 끄벅끔벅하며 말했다. 찬성하라는 것이다.

“난……저어……”

갑주는 그러나 일론 결정을 못하고 말 끝을 흐리며 망서리려는데,

“갑주 오빠다!”

옥순이가 미친 듯 고함을 치며 쭈살 같이 이리로 달려오고 있었다.

옥순이는 헐레벌떡 갑주앞에 와 서더니,

“오……오빠, 저……저……”

숨이 차서 말을 못했다.

“뭐야, 천천히 말해 봐!”

창수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며 니, 이렇게 가로채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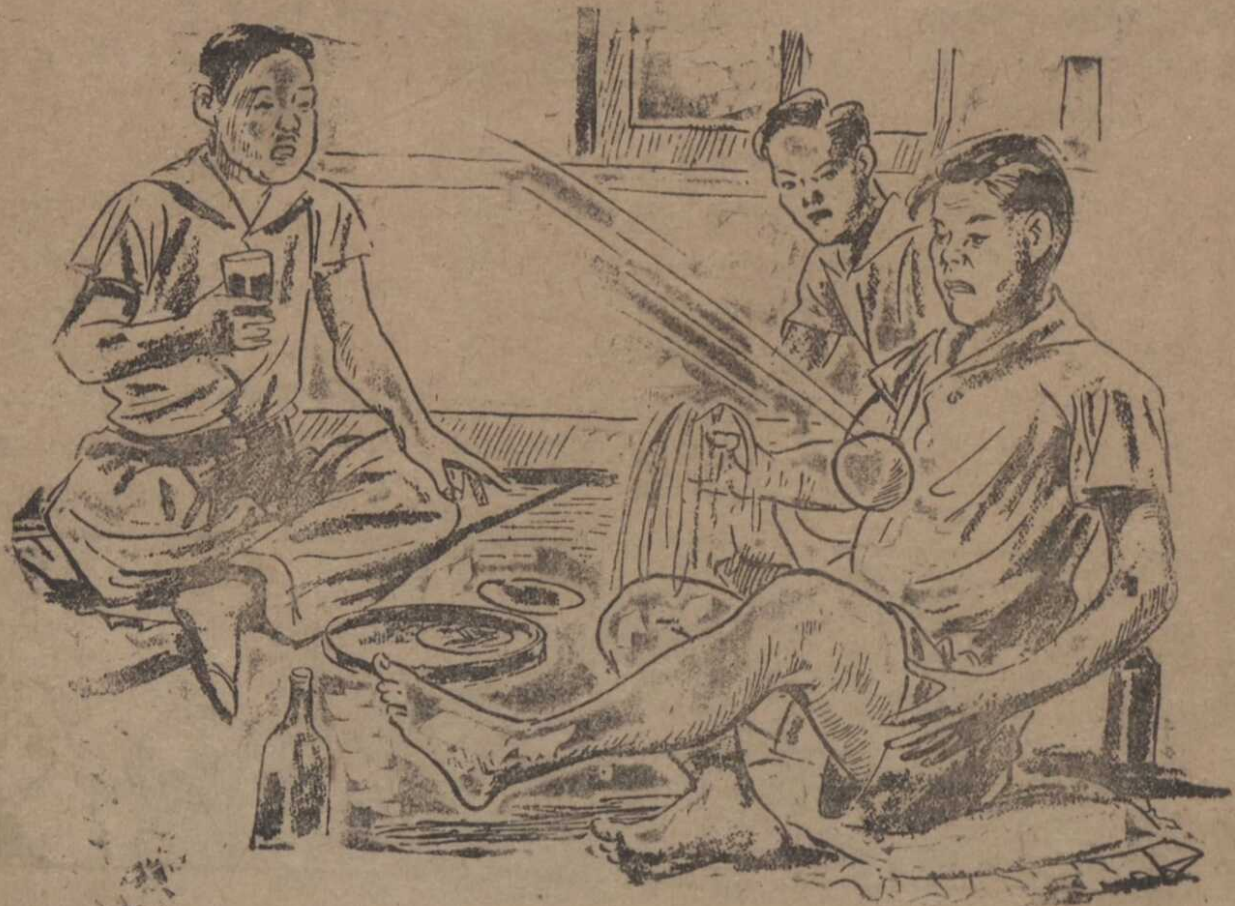
“요 까불이야 물줍 떠다 주 까?”

놀려댔다. 옥순이는 성이 발끈 나서 눈을 흘겼다. 그 통에 흥분이 진정되었는지, 이번엔 말이 제대로 나왔다.

“저……저어, 희봉이 말야!”

쫓겨서 굴던 창수가 희봉이란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지, 벌안간 엄숙한 얼굴을 하고 옥순이 팔을 붙잡으며,

“희봉이가 어렸어?”



그러나 우순이는 그 팔을 꼭 뿌리치며,

“팔 아파, 봐! 누가 널떠러 탈했어?”

히더니 갈주 쪽으로 돌아섰다.

“희봉이가 오늘 퇴원한대!”

“뭐?”

“희봉이가 퇴원해?”

“응, 팔리를 마중 나가 봐!”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누구 입에선지,

“만세!”

소리가 터져나왔다.

“만세!”

다른 아이들도 따라 만세를 부르려는데, 창수만은 슬쩍 아이들 틈에서 몸을 빼치더니 미친 아이 모양으로 동네 쪽을 향하여 달음질 치기 시작하였다.

와아, 다른 아이들도 의미 없는 고함을 치며 지지 앓겠다고 그 뒤를 따랐다.

모뎀군 모양으로 고함을 지르며 아이들 한떼가 비탈길을 내달은 후의 고개 넘어 동네는 잠



자는 듯 고요해졌다.

맑게 개인 초가을 하늘은 한없이 푸르다. 먼 산 높은 봉우리

에도 구름 한 점 걸려 있지 않았다.

...(끝)...

★북성당 소년소녀 문고 1

모오구리의 모험

작은돌 번안·김 의환 그림  
“초학생”에 연재되어 독자의 가슴을 뜨겁게하던 썩썩하고 슬기로운 모오구리와 짐승들이야기!

전후편·합본 값 350원

총판매·문장각

(책사마가 있습니다)

★북성당 소년소녀 문고 2

신라의 별

이 성포 지음·정 현웅 그림  
“어린이나라”에 연재되어 갈채를 받던 정편 역사 소설!  
김 유신장군의 웅감무쌍한 이야기를 꼭 읽으십시오.

값 250원

총판매·문장각

(책사마가 있습니다)

★북성당 소년소녀 문고 3

소년 탐정 에밀

심 은정 번안·김 의환 그림  
유익하고 아슬아슬하고 재미있는 소설! 여기에 나오는 에밀과 같이 악고 폭풍한 초학생들은 꼭 봐야 할 책입니다.

값 320원

총판매·문장각

(책사마가 있습니다)

# 책의 역사

— 책을 통한 인류의 역사 —

제로(0=공)의 발명—즉,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어째서 0이라는 기호를 쓰는가, 이상하게 생각한 일은 없습니까?

인간이 이 제로(0)를 발명한 것은, 기원이나 전화를 발명한 것과 다름없이 큰 사업이었다—고 저자 엠·이런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로(0)의 발명, 글자의 발명과 발전, 책의 진화 등—이런 것의 가장 흥미 있고, 더구나 정확한 설명이 이“책의 역사”속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 이 상 문



## 제 1 장

### 살아 있는 책

맨 처음 책은 대체 어떻게 생겼었을까? 그것은 인쇄된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손으로 쓴 것이었을까? 그건 종이로 된 것이었을까, 혹은 무슨 다른 재료로 된 것이었을까? 그리고 만일 그 최초의 책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어느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을까?

옛날에 맨처음 책을 찾아내려고 세계 도서관이란 도서관은 모조리 돌아다닌 미련한 사람이 정말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점점 얼굴 핏이 노오래가지고 고풍대가 모든 책은 산갈이 짙은 책 사이에서 몇 날 몇 달을 두고 찾았습니다. 그의 옷과 구두 사이에는, 꼭 몇 백리 길을 걸은 사람처럼 먼지가 뽕얕게 앉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책 뜻이에

높이 세워 놓은 사다다리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그보다 백년 더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지는 못했겠지요. 세계에서 맨처음 책은,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몇 천년 전에 벌써 써어 없어진 것입니다.

맨처음 책은 지금 우리가 보는 책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손과 발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책뿔이에 끼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도 할 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것은 살아 있는 책—즉, “사람 책”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은 글씨를 쓸 줄 몰랐습니다. 그 대신 그

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정말 살아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랜 옛날에 관한 굉장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그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 들은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야기는 오래오래 살아 나갔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아들에게로, 할아버지한테서 손자에게로 전해 내려 가서, 그 이야기는 전해 내려 가는 동안에 변해 갔습니다. 어떤 일이 덧붙여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없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흘러가는 물 때문에 돌이 짝기는 것처럼, 이야기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짝기고 깨닫혔습니다. 어느 용감한 추장의 전설은 변해서, 화살이나 창도 두려워하지 않는—이리와 같은 모양으로 호수를 돌아다니고 독수리와 같은 모양으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거인



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의 휘  
미친 한 구석에는, 오늘날까지  
도 아직 지금까지 글로 쓰워진  
일이 없는 이야기—거인들에  
관한 옛날 이야기를 하는 늙은  
이 이야기꾼들이 있습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그리  
스에서는 그리스 사람과 도로이  
사람과의 전쟁 이야기를 노래  
로 부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러한 이야기들  
이 글로 쓰워지게 되기  
까지에는 상당히 긴 세  
월이 흘러갔던 것입니  
다.

노래하는 사람, 즉 그  
리스 말로 “에도스”는  
언제나 잔치에 없어서  
안될 손님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높은  
원주(圓柱)와 맞대어  
앉습니다. 그의 “라이라”

(고대 칠현금)는 머리에 달은  
갈구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잔  
치가 끝납니다. 고기가 가득 담  
겨 있던 나무접시는 빈 접시가  
됩니다. 손잡이가 두 개 달려있  
는 황금술잔은 가져가 버렸습니  
다. 그들은 웬만큼 취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무슨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에도스”는 그  
“라이라”를 들고 줄을 땅기어,  
간사하고 피많은 오렛소스왕  
(王)—용감한 전사 아키레스  
에 관해서의, 위대한 이야기를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도스”의 노래는 훌륭한 것  
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은 그 이상 더 훌륭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1떨라 혹  
은 그 안으로라도 손쉽게 주머니  
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권의  
“이리아드”(그 노래책)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또 절대로 병들거나 죽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 생각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노래하는 사람)

## 살아 있는 도서관 이야기

옛날, 로마시에 한 부자가 살  
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테류스이었습니다. 그의 놀랄판  
큼 많은 재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의 궁전은 굉장하  
켰으므로, 시내 사람이 전부 들  
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  
다 3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그의 저택 테블에 모여들었습니  
다. 모두 로마에서 제일 고귀하  
고도 교양있는 시민들이었습니

다. 아름다운 황금비단으로 덮  
인 테블이 하나 뿐만이 아니라  
서른 개나 있었습니다.

이테류스는 손님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손님들을  
좋은 음식으로만이 아니라 재치  
있고 피 있는 말재주로 대접하  
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에는 손으로 베껴 쓴 책이 있었  
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어느 잔치 때에, 손님들  
에게서 자기들의 재미  
있는 이야기와 피 많  
은 말재주를 칭찬 받기  
위해서 몇 시간이고 앉  
아서 이러한 책들을 읽  
었습니다.

이테류스는 무엇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  
다. 그에게는 꼭 한가  
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  
다. —그건 교양(교육  
과 수양)입니다. 그는 책을 읽  
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의 초대  
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 것을  
기뻐하던 사람들은, 뒤로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  
는 동안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갱실히 말을  
꺼내면, 손님들은 거리낌없이  
빙그레 웃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  
습니다. 그러나 그는 꼭 게으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  
아서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이었  
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고 정신  
들여 하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

입니다. 그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오래 두고 생각한 나머지, 마침내 좋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의 절사(執事)에게 명령하여, 그의 많은 노예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고 교양있는 자로 2백 명을 뽑아냈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어느 책을 외우라는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리아드”를 외우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오뒷세이”를 외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집사에게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노예들을 여러차례 매질한 끝에, 겨우 이테류스의 명령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테류스는 일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냐 하면, 살아 있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회 석상에서 이야기 시간이 되면, 그의 하지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는, 집사에게 신호



우체 제도는?

홍영식(洪英植)선생

조용만

지금은 여러 분들이 손쉽게 아모데로나 편지를 부칠 수도 있고, 전보를 칠 수도 있지만, 70년 전만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사로, 즉, 개인개인끼리는 물론 편지를 주고받고 할 도리가 없었고, 다만 나라에서 하는 편지, 공문서만은 역전법(驛傳法)을 이용해서 지방으로 부치고, 받고 할 뿐이었습니다. 역전법이란 어떤 것인가 하니, 서울서 편지몽둥이를 짚어지고, 급하면 말을 타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수원(水原)까지 갑니다. 수원이 정거

장이 되어서, 거기서 편지를 내려놓고, 다시 수원에서 새 사람이 말을 타든지 걸든지해서, 그 다음 정거장인 대전(大田)까지 갑니다. 거기서 또 이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다음 정거장까지 갑니다. 이렇게해서 편지와 공문서를 전하는 법이 역전법인데, 옛날에는 이밖에 다른 법이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편하고, 시일이 걸리는 일입니까. 그나마 보통 사람들은 이것도 이용하지 못하고, 편지 하나 못하고, 절벽으로 지냈으니, 얼마나 갑갑한 일입니까.

지금부터 70년 전인 단기 4215년, 즉 고종(高宗) 19년, 임오(壬午)에 우리 나라와 미국이 조약을 맺어, 국교를 시작하고, 그 이듬해인 4216년에 보빙사(報聘使)라고하여, 민

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벽 앞에 말 없이 죽 늘어서 있는 노예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 적당한 구절을 외웠습니다.

노예들은, 그 외우는 책에 따라서, 각각 이리아드, 오뒷세이, 니트, 등의 이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테류스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의 살아 있는 도서관은 로마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만족은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들리지 않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파르 부자는 시중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 전과 마찬가지로 이야기는 여러가지, 교양있는 회제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옛시대에는 잔치는 어떻게 하였던가 하는데 대해서 서로 말을 주고 받았었습니다.

이테류스는 “그것에 관해서,



(이테류스와 그의 살아있는 도서관)

영익(閔泳翊)과 홍영식(洪英植)은 미국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지난 달에 말씀했으니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 해 6월에 서울을 출발하여, 9월에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였습니다. 대통령과도 만나고, 여러 군데로 구경도 다니고, 연회에도 나가고 해서, 여러 가지로 미국의 새로운 문명에 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홍영식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우체(郵遞) 제도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본받아다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그해 12월에 서울로 돌아오는 길로, 고종을 뵈었고,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우체제도를 본받아야 할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고종께서는 그 말에 따라서, 그 이름해인 4217

년, 갑신(甲申)에 우정국(郵政局)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체신부(遞信部)를 새로 설치하고, 홍영식을 그 우정국 총판(總辦=長官)에 임명하였습니다. 홍영식은 열심으로 우리 나라에 새로 설치할 우체제도를 연구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방법이란 어떤 것인가 하니, 집신(集信) 즉, 편지를 모아 오는 법, 분전(分傳) 즉 모아온 편지를 나눠 주는 법, 발신(發信) 즉, 편지나 전보를 탄 지방으로 보내는 법, 착신(着信) 즉 지방에서 온 편지나 전보를 받는 법입니다.

이리하여 우선 이 우정국 일을 볼 관청을 새로 짓기로 되어 지금의 견지동(堅志洞) 38번지 터에다가 우정국 청사를 크게 지었습니다. 이 집을 다 짓고, 그 낙성식(落成式)을 하는 날이, 바로 그해 12월 초

나흘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날 밤에 일어난 변란을 여러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갑신사변(甲申事變) 또는 우정국 사건(郵政局事件)이라고 해서, 이 낙성식 연회에서 여러 대신을 앞에 홍영식 우정국 총판이 일장 인사를 하고 나자, 별안간 열 집에서 불이 나고, 김옥균(金玉均) 일파가 변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변란중에, 낙성식 연회는 수라장이 되고 며칠 뒤에 홍영식이 역적으로 몰려 죽었으므로, 당연히 우정국도 호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다가 그 뒤로부터 10 뒤인 4228년 을미(乙未)에 우체규칙(郵遞規則)이 공포되고, 새 우체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홍영식의 뜻을 이어서 우리 나라에 새 우체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리아드 속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고 집사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는, 노예에게 전호하는 대신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감님, 죄송하옵나이다.

이리아드는 오늘 윗병으로 드리누었습니다!”

이건 2천년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우리는 살아 있는 책없는 하루도 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일을 책



에서만 배울 수 있다면, 결코 학교에 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

다. 우리에게 사물을 일러주고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선생님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책에게 무엇을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에게는, 여러분이 의심하는 사물에 대해서 언제든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책은, 어느 때나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글자는 인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글씨를 쓸 줄 몰랐던 시대에는, 물론 일정하게 다니는 통신우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무

는 중요한 사건을 기별해야만 될 때에는 말로 일러준 것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짐부름군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통신우체부 대신에 힘으로 전하는 전종인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몇 천자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는 도저히 없을 것입니다. 가령 그러한 우체부가 존·스미스의 집에, 그의 생일날에 왔다고 합시다. 이 집 주인이, 손님이 오신 것을 예측하고 손수 문을 열읍니다.

“어찌 오셨나요?”

“나는 당신께 편지를 가지고 왔읍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스미스씨에게

생신날을 축하합니다. 결혼하신지 썩 오래되었습니까? 오늘 열 두 시에 재판소에 출두할 것. 죄없고 싶으니 가끔 들려주시기를.....”

존·스미스는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백 마더 말을 뒤죽박죽 머릿속에 집어넣은 불쌍한 우체부는, 리업 풀린 기계처럼 썩썩썩 주워섬 집니다.... ...계 속...



개 고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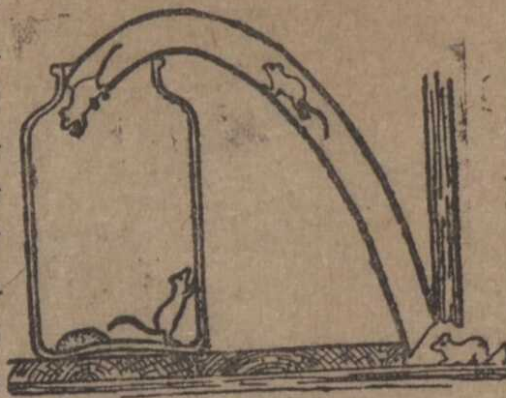
세간을 타치는 데로 팔고 무서운 병을 퍼뜨리는 귀를 많이 잡읍시다. 귀를 잡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재미나도록 잘 잡히는 최신 발명 귀뿔 만드는 법을 가르켜 드리겠읍니다.

자전거 바퀴의 현 유부 약 50cm와 귀가 넉넉히 들어갈만한 유리병이 한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유부한 끝을 쥐구멍에 꼭꼭아서 귀가 마음대로 드

★최신식 쥐뿔★

나들 수 있도록 해 놓는다. 또 한쪽 끝은 비스듬히 꾸부려서 유리병에 꽂으면 되는데, 병 속에는 미리 먹이를 넣어 놓는다.

병은 쓰러지지 않도록 해 놓아야 합니다.



착척 박사



(문) 착척 박사 할아버지 안병하라고 야단치지 안녕하십니까? 긴 피상한 집은? (서울 우물 때는 짧고 더울 수송교 무 상천)



(답) 올때는 긴 (답) 가마솥에 들어 것이 무엇인 줄은 것. 그런데 답니까? (서울 미리 써 보내지

울서대문교 김 송영) 잘게 (착척 박사)

(답) 한난제의 수은주 (문) 착척 박사 할

(수은柱) (착척 박사) 아버지 왜 벌써 땀

(문) 착척 박사 할고 계산가요? 땀을

아버지 처음 배운는 때에는 모

안사는 교만두고 한 자를 벗고

문제 여쭙았읍니다. 오졸 놀때

도르리가 낀

저 되었을

(문) 착척 박사 할

아버지 안병하십니까?

(답) 달같이 먼전기

참이 먼전기를 알

(문) 착척 박사 할

아버지 안병하십니까?

(답) 착척 박사 할

아버지 안병하십니까?

(문) 착척 박사 할

아버지 안병하십니까?

(답) 착척 박사 할

아버지 안병하십니까?

(문) 착척 박사 할

아버지 안병하십니까?

(답) 착척 박사 할

아버지 안병하십니까?

(문) 착척 박사 할

아버지 안병하십니까?

(답) 착척 박사 할

세계 명작 삽화집 ②

여러분 가운데는 아헨 그림에  
 기책에 정 현웅선생이 그린 "꿈  
 나라의 아리쓰"를 사보신 분이  
 제실 들 압니다. 아리쓰라는 소  
 녀가 언니와 함께 들에 나갔다가  
 꿈을 꾹니다. 이 꿈이 참으르 기  
 기묘묘하여 도무지 재미 있는 일  
 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가  
 서양 어린이들이 노상 즐겨하는  
 노래며 사장이 연달아 나오기 때  
 문에 서양 어린이들에게는 이보  
 다 재미 있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계  
 를 통하여 해마다 제일 잘 팔리는  
 책이 되어있습니다. 짓기는 루이  
 스·카를이라는 옥스포드대학  
 의 수학선생이 지은 것인데, 원  
 이름은 "이상한 나라에서 아리쓰  
 가 모험한 이야기"라는 것입니  
 다. 위의 그림은 미국에서 만든  
 아리쓰 이야기의 삽화인데, 바로  
 아리쓰가 숲속 연회에 참석하여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광경  
 입니다.



* 아헨 그림애기책 이름가지	흥부와 놀부	김 응 환	그림 · 값 150원
	손 오 공	김 응 환	그림 · 값 150원
	보 물 섬	김 응 환	그림 · 값 150원
	피 터 이 팬	김 의 환	그림 · 값 150원
	어 린 예 술 가	김 의 환	그림 · 값 150원
	결 리 버 여 행 기	김 의 환	그림 · 값 150원
로 번 손 · 크 루 소	정 현 응	그림 · 값 150원	

아헨 발행 \* 을유문화사 · 문장각 발매

"쿠우폰표"는  
 잘 모아 두었  
 다가 12장이 되  
 거른 윤 12월  
 에 보내십시오.

소 학 생  
 쿠 우 폰 표  
 No. 5

"애독자 상  
 락기"에 오려  
 붙여 보내십시  
 요.

소 학 생  
 독 자 증  
 5 월 치

# 소학생의 꿈

▲어디 기자 선생님 안녕히들 계시옵나이까? 저는 국민학교 6년 때부터 “소학생”을 사랑해 왔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촌에서 낮이면 일하고 밤이면 “소학생” 읽기에 골몰합니다. 그런데 기자 선생님 농촌에 있는 저의들도 원고를 내도 두방하나이까?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왜, 75호부터 “척척박사”의 재미난 이야기가 없어졌는지요? 매우 섭섭합니다. (경북 칠곡군 이 동기)

▲농촌에 계신 동구들도 좋은 작품 많이 보내주십시오. “척척박사”께서는 그 동안 좀 여행을 하셨다가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아주 녀터 마십시오 (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월 29일에 학교에서 원숙을 갔다 즐겁게 놀고 집에 돌아와서 “소학생” 3월치를 보았읍니다. 문득 1월치 상타기 문제 난점이 생각나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카 이등으로 되었읍니다. 이제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꿈은 아니겠지요. 그럼 안녕히. (서울 재등교 4년 홍 기남)

▲기쁘시겠읍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모하십시오. (기자)

▲기자 선생님 “소학생”이 참으로 기다려집니다. 한자지 부락하

는 말씀은 다음 달치는 언제쯤 나온다고 진호에 발표하여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서울 경운교 5년 그 광훈)

▲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산천에 꽃들이 한층이 꽃을 맺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희망도 한층이 꽃을 맺고 있습니다. 기자 선생님들께서 나뭇가 되시어 우리 꽃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시기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난 3월치 상타기 발표에 당선되었는데, 여태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 무슨 영문이십니까? 그럼 안녕. (군산 구암교 6년 김 수래)

▲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1월 부터 “소학생”의 큰 애독자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척척박사”를 보낼 적에 달도 써보십니까? (월성고 5년 박 명석)

▲미리 답까지 써 보내면, “척척박사”가 골라집니다. 문제만 보내셔야 돼요. (기자)

▲아현 선생님을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3월호 뒷장에 박은 “3·1운동” 사진은 언제 찍은 것입니까? (인철 죽현교 5년 김 재현)  
▲그것은 3·1운동당시 어떤 사람이 몰래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기자)

으면 좋겠읍니다.  
○이런 호트저 저는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었읍니다. 섭섭하지만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년에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으니까요. 제 대신 암전이라는 귀여운 소녀가 일을 맡아보게 되었답니다. 아주 똑똑한 아이예요. 많이들 귀여워 해주세요. 그럼안녕히.



○세번째 “아현 상타기 작문”에 특등 당선된. 이 중길 군의 “나의 발전장”이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 4학년지에 들어갔읍니다. 울에도 그런 훌륭한 작품이 나왔

# 어린이

★5월은 정말 자라는 시절인가 봅니다.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사람도 자라고, 그리고 즐겁고 희망이 부추려 오르는 달입니다. “어린이날” “졸업” “중학교”……부디 큰 뜻을 품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달치는 좀 빨리 보내드린다는 것이 또 늦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재학기 6월치부터는 정말 빨리 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손 힘을 다하고 있으니 기다리십시오.

★내용도 재밌고 시원해집니다. 그 중에도 여섯 페이지나 되는 “사건화보”는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것입니다.

★작문에 입선한 한 월향(잊혀지지 않는 날) 군은 곧 학교 이들을 알려 주기 바랍니다. (심은정)

4283年 5月 1日 發行  
**소학생 · 값 150 원**  
**5월치 \*제 78호**  
 發行人 尹石重  
 印刷人 金關斌  
 發行所 兒統  
 4289年 9月 30日 登錄 第249番  
 41號 第2回 公報  
 總販賣 乙酉文化社  
 서울 鐘路 2街 82  
 振替 서울 2706番  
 電話 3970  
 3492  
 0187

서울신문社 印刷局  
 4289年 9月 31日 登錄 第14號



어린 화가들

사진 박은이·김 규 호

제2회 어린이 사진 전람회 에세



자전거가 나갑니다

사진 박은이·김 규 호



★ 한글 학회 편찬 ★

# 크리스천

## 세 째 권이 나왔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말 사전 가운데서 가장 완전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학생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가정에는 반드시 한 권씩 있어야 할 책입니다.

48倍判636面 本文欄上紙 純크로스洋裝의 豪華版

**값 2,000圓** [지금 시세의 지방에 소포로 부칠  
[절반도 못됨] 때엔 200원을 더 받음.]

제1권 2,000원 · 제2권 1,500원 · 방금 발매중

乙酉文化社發行

### 소학생 연습장

서울 학습 지도회 엮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이 책으로 공부하여 더욱 성적을 올립니다.

제2학기치 총연습

6학년치 · 350원, 5학년치 · 220원,  
4학년치 · 220원,

아협 발행 · 文章閣 發賣

### 소년 상식

3,000문답집

우리나라 소학생은 누구나 다 알아 두어야 할 문제만을 3,000가지 추려모아서 알기 쉽게 대답을 붙인 책!

글벗집 엮음 · 값 500원

아협 발행 · 文章閣 發賣